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9 호 10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3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第19号 (233)

1963년 10월 (상)

차 례

—第4기 第7차 전원 회의 결정 관철을 위하여—

자력 갱생의 기치 밑에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자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는 중공업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전 당이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하여 1~2 년 내에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빛나게 완수할 데 대한 력사적인 과업을 제시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는 이 숭고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 당과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호소하여 전체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전체 당원들과 전체 인민은 커다란 흥분과 감격 속에서 당 중앙 위원회의 붉은 편지를 접수하였으며 지금 각급 당 단체들은 그를 성과적으로 실현할 데 대한 구체적인 토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벌써 대중의 로력적 열의는 비상히 앙양되고 있으며 수 많은 혁신적 성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중 기계 공장 로동자들은 고도의 기술 과학적 지혜를 요하는 75 톤급 탑식 기중기를 생산 설치하여, 성공적인 시운전을 보장하였으며 덕현 광산에서는 이 광산의 생산량 증대에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2천 메터의 통동갱을 관통하였으며, 함흥 동력 기계 공장에서는 자동 전기 가마, 2중식 곤로 등 다양한 가정용 전기용품들을 훌륭히 생산해 내고 있다. 우리 나라 각지 농촌들에서는 풍작 이룬 곡식을 걷어 들이는 전투에서 련일 새 기록들을 올리고 있다. 열두 삼천리'벌에서, 나무리'벌에서, 함주'벌에서, 전국의 모든 곳에서 예년에 드문 성과적인 추수 소식이 풍작 소식과 함께 전해져 오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가 취한 조치는 정당하며 그것은 거대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성숙된 요구와 그리고 자신들의 생활을 결정적으로 추켜 세우려는 우리 인민들의 숙망과 혁명적 지향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기간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이 악전 고투하여 쌓아 올린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는 자체의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그리하여 오늘에 와서 우리 인민들은 남부럽지 않은 훌륭한 살림살이를 마련할 수 있는 밑천을 가지게 되였다.

이제 다시 한 번 우리가 자력 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 들고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킨다면 우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은 실현될 것이며 더 휘황한 앞날을 약속하는 7 개년 계획의 웅대한 과업도 성과적으로 완수되고 나라의 경제는 더욱 위력해질 것이다. 우리 인민은 기와집에서 이밥에 고기'국을 먹고 비단 옷을 입고 사는 문'자 그대로의 지상 락원에서 살게 될 것이며 빈궁과 헐벗음은 영원한 옛말로 되고 말 것이다.

자력 갱생의 기치 밑에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여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는 것은 미제 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힘 있게 고무하며 조국 통일의 위업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는 데 있어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지난 시기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성과로써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 추동하였으며 미 제국주의 략탈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 통치가 붕괴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우리가 달리는 천리마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하여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의 결정을 관철시키며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공고화하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혁명의 거지—공화국 북반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한다면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다 명백한 투쟁 전망과 신심과 용기를 주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조국 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오늘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고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급속하게 향상시키는 것은 국제 혁명 세력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과거 우리 나라와 같이 락후한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 있던 신생 독립 국가들에 주게 될 심각한 혁명적 영향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지난 공화국 창건 15 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하였던 아세아,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 국가 대표들이 한결 같이 인정한 것처럼 자력 갱생의 원칙에 기초한 우리의 발전은 그들에게 커다란 고무적 모범으로 된다. 그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새로운 혁명적 고조를 목격하게 될 때, 자력 갱생의 기치 밑에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제국주의로부터의 종국적인 해방의 길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부강과 인민들의 생활 상 요구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라는 것을 더욱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식민주의 세력에는 커다란 타격으로 된다.

자력 갱생의 기치 밑에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성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앞잡이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을 폭로 분쇄함에 있어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자력 갱생의 기치 밑에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로선의 정당성과 그의 위대한 생활력을 다시 한 번 시위할 것인바 이것은 이 로선을 《민족주의》니, 《폐쇄된 경제》니 하고 비방 중상하기에 여념이 없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에게 더욱더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서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기여로 된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7 차 전원 회의와 붉은 편지가 제시한 혁명 발전의 이 휘황한 전망은 전체 인민을 힘찬 로력 투쟁에로 무한히 고무하고 있다.

* *

사회주의 건설에서 다시 한 번 혁명적 대고조를 이룩하며 우리 인민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명년도의

인민 경제 계획은 방대하고 어려운 과업이다.

이 전투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자력 갱생의 정신을 철저히 발양하여야 한다.

그것은 우선 일'군들이 혁명가적 기풍을 발휘하는 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정확하며 그를 집행하는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각오도 비상히 높다.

문제는 혁명 과업 수행을 지휘하는 간부들이 이 력량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한 활동에서 우선 자력 갱생의 정신을 발양하는 데 있다.

지도 일'군들은 당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그를 철저히 구현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여야 하며 그 집행을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관철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혁명 과업 수행에서 제기되는 온갖 난관과 애로를 용감히 극복해 나가는 강의한 투지와 혁명적 전개력이 요구된다.

지도 일'군들이 이러한 혁명가적 품성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당 정책 집행을 능숙하게 조직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복잡한 제반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 나갈 수 없다.

또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은 당이 제기하고 있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기술 혁신 운동을 적극 추진시키는 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명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혁명 임무의 하나가 바로 사람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시키고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생산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 혁신 운동은 우리 나라 생산력 발전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할 명년도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절실하게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력사적 숙망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부문에서 손로동과 락후한 기술을 퇴치하여 생산 공정을 기계화하고 자동화하며 특히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을 기계화하며 기계화된 부문들을 종합적 기계화와 자동화에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중의 기술적 창안을 광범히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집단적 기술 혁신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체 낡은 사고 방식에서 해방되여 모든 것을 창조적으로,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것은 기술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 발전을 저애하는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 잔재들을 철저히 극복하며 로동자들과 과학 기술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기술 혁명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급속히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전원 회의에서 중요하게 강조된 바와 같이 전 당이 기술 과학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며 특히 지도 일'군들은 정치 학습과 함께

기술 과학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선진 과학 기술의 성과들을 부단히 섭취하며 그것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알맞게 대담하게 도입하고 일반화하는 사업들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짧은 기간 내에 당이 제기하고 있는 기술 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자력 갱생의 정신은 또한 로동 행정 사업을 일층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발현되여야 한다.

우리는 로력이 긴장된 조건 하에서 방대한 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당은 명년도 공업 생산액의 장성 계획도 바로 추가적 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의해서 달성시켜 나갈 것을 예견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술 혁신과 함께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하고 로력 조직을 합리적으로 함으로써 한 명의 로력이라도 절약하여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도록 하는 것은 긴요한 문제이다.

로동 행정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로동에 대한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을 잘 실시하여 생산에 대한 근로자들의 물질적 자극을 부단히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잘 실시하기 위해서는 로동 정량을 바로 정해주고 로동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해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로동 보호 및 안전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옳게 세우며 후방 공급 사업을 더욱 개선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생산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함으로써만 가까운 년간 내에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2 배 이상 높일 수 있다.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엄격한 절약 제도를 확립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기 위한 투쟁에서 또한 자력 갱생의 정신이 표현되여야 한다.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하게 꾸리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풍모이며 나라의 주인으로 된 전체 근로자들의 영예로운 의무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현 시기에 나라와 인민을 위한 고상한 애국심은 바로 국가와 사회 재산을 극력 아끼고 절약하는 데서 중요하게 표현되여야 한다.

모든 부문에서 한 그람의 철, 한 오리의 실, 한 토막의 나무라도 더 절약하여 한 가지라도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제품의 질을 빨리 높이는 것은 우리 인민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생활 필수품의 품종을 확대하며 그의 질을 제고하는 것은 현 시기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의 성숙된 요구일 뿐만 아니라 인민의 절실한 생활상 요구이다.

때문에 당 중앙 위원회의 붉은 편지는 제품의 질을 2~3 년내에 선진 수준

에 도달하게 하며 그의 품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제품의 질을 제고하며 품종을 확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생산자 대중들로 하여금 한 개의 물건을 만들어도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자기 자신과 후손들의 행복을 위하여 더 알뜰하고 쓸모 있게 만들겠다는 배려의 정신과 공산주의적 사상 관점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부문에서 되는 대로 만드는 낡은 습성을 반대하는 사상 투쟁을 전개하며 근로자들 속에서 일상적으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가일층 공고 발전시키는 것은 전체 인민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로 불러 일으키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보다 촉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당 조직들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확대 발전시킬 데 대한 조직 지도 사업을 강화하며 근로 단체들이 이에 대한 지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조를 주어야 한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7 차 전원 회의 결정과 붉은 편지 정신을 관철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계속 철저히 도입하며 실현하는 것이다.

경험은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실천 활동에서 옳게 구현한 모든 곳에서 당 정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으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가 사회주의 건설에 최대한으로 조직 동원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은 현 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계속 견지하고 나아가야 할 기본 열'쇠이다. 우리는 이 열'쇠를 틀어쥐고 나감으로써만 당의 군중 로선을 더 잘 관철하고 모든 사업을 당의 요구에 맞게 실현하면서 대중의 창조적 지혜와 열성을 성과적으로 계발할 수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자력 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당이 부르는 새로운 전투에로 힘 있게 전진하자.

자립적 중공업 토대와 인민 소비품 생산의 획기적 발전

손 경 순

최근에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는 중공업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전 당이 인민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하여 1~2 년 내에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7 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할 데 대한 력사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전 당이 인민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할 데 대한 금번 전원 회의 결정은 현 시기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와 빨리 전진하여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건설하려는 우리 인민의 일치한 념원을 반영한 것으로 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한히 흥분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하고 있다.

우리 당은 이 영예롭고 숭고한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공업으로 하여금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복무하도록 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 결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964년도 인민 경제 계획 수행에서 《중공업 부문의 중심 과업은 채취 공업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선행시키면서 중공업의 골간에 계속 살을 붙이고 재가공 공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중공업으로 하여금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으로 되게 할 것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데 있다.》

명년도 중공업 부문 앞에 제기된 이 과업을 실현하는 것은 이미 구축된 자립적 중공업 토대의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휘시켜 나라의 경제력을 더욱 강화하며 인민들이 남부럽지 않게 살도록 하기 위한 전원 회의 결정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관건적 문제로 된다.

* *

현 시기 우리의 중공업으로 하여금 인민 생활 향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것은 인민 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증대시켜 더욱 유족하고 문화적으로 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로 되며, 자립적 경제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인민 경제의 가일층의 앙양을 위한 튼튼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전후 중공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시종일관 인민 생활과 밀접히 련결되여 있으며 그에 적극 복무하는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방침을 취하여 왔다.

우리 당의 이 방침은 전후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절실한 요구와 조성된 사회 경제 발전의 제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였다.

이미 사회주의 건설에 들어 선 나라들은 비교적 덜 발전된 나라라 하더라도 대체로 일정한 경공업 토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산업 혁명과 경제 발전이 경공업으로부터 시작되는 사정과 관련된다. 현대적 경공업 토대가 없는 나라들은 봉건적 수공업에 기초한 소비품 생산이라도 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들어 섰다.

그러나 과거 산업 혁명을 거치지 못한 우리 나라는 경공업 토대를 가지고 있지 못 하였으며 일제의 식민지 통치로 말미암아 수공업도 다 몰락되였다. 약간 있었다는 경공업마저도 남북의 량단으로 인하여 남반부에 있게 되고 북반부에는 그야말로 소비품 생산이란 거의 없었다. 더우기 3 년간의 전쟁은 우리 나라의 경제 토대와 인민 생활을 여지 없이 파괴하였다.

바로 이러한 사정은 전후 우리 나라 경제 건설에서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함과 동시에 경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중공업을 건설함에 있어서도 인민 생활 향상과 밀접히 련결된 부문에 중점을 둘 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 나라의 경제 토대를 일층 강화하면서 인민 생활 향상에 필요한 생산물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 보장할 수 있으며 소비품 생산이 자기의 중공업에 의거하여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중공업을 건설하면서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한 기초를 축성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가 하려는 중공업은 경공업과 농업 발전에 복무할 수 있는 중공업이요, 앞으로 우리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기초를 닦는 중공업이요, 또한 오늘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중공업이다.》(선집 제 5 권, 365 페지)

3 개년 계획과 5 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당의 이러한 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기계 제작 공업을 비롯하여 금속 공업, 전기 공업, 석탄 공업, 건재 공업, 화학 공업 등 모든 기간적 중공업 부문들이 급속히 건설되였으며 나라의 중공업 토대는 확고히 축성되였다. 더우기 7 개년 계획의 첫 3 년 간에 우리는 여러 부문들을 더 창설하고 미비하고 부족한 점들을 정비 보강함으로써 중공업 기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은 급속히 향상되였다. 인민들에게는 오막살이 집 대신에 새로운 문화 주택들이 차례졌으며 의식주에 대한 근심 걱정에서 인민들은 완전히 벗어 났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이에 만족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사는것 —이것이 헐벗고 굶주리던 우리 인민들이 남만 못지 않게 살기 위한 세기적 숙망이다. 오늘 인민들은 더욱더 유족하고 문명하게 살 것을 절실히 념원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인민들의 이러한 념원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물질적 토대와 경제 생활에서의 여유를 가지게 되였다.

현 시기 우리 인민들의 세기적 숙망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가능성에 기초한 성숙된 요구이다.

중공업을 경공업과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복무하게 할 데 대한 금번 전원 회의에서 취한 우리 당의 조치는 바로 이러한 성숙된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한 가장 정당한 대책이다.

생활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중공업에 계속 살을 붙이고 재가공 공업 부문들을 발전시킨다면 오늘 인민 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으며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더 좋은 문화 주택에서 일체 가구들과 문화 용품들을 갖추고 풍족하고 문화적으로 살게 할 수 있다.

우리 당의 금번 조치는 이와 함께 현 단계에서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정확히 보장함에 있어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당은 지난 기간 축적과 소비의 호상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축적을 급속히 증대시키면서 당면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를 동시에 장성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여 왔다. 이것은 인민 생활을 급속히 제고시킴과 함께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여야 할 우리 나라의 정세와 우리 혁명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가장 합리적인 대책이였다. 결과 인민 생활 향상을 보장하면서 사회주의적 축적을 급속히 증대시킬 수 있었으며 강력한 중공업 기지를 가질 수 있게 되였다.

생산의 계통적인 급속한 확대를 위해서는 축적을 부단히 증대시켜야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하에서 축적은 궁극에 가서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것인 만큼 축적을 위한 축적으로 될 수는 없다.

소비를 계속 장성시키는 한편 축적도 그 효과를 더 잘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인민들의 생활을 급속히향 상시킬 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축적과 사회주의 건설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게 한다.

중공업을 경공업과 농촌 경리 발전에 효과적으로 복무하게 하여 소비품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은 허리띠를 졸라 매고 확대한 축적의 효과를 더 잘 나타내게 함으로써 소비를 급격히 장성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인민들의 열성을 제고시키게 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인민 생활을 급속히 제고시킴과 동시에 금후 중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필요한 조건들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서 우리 당의 금번 조치는 인민 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키고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가일층 촉진시킬 것이다.

오늘 남반부 인민들은 18 년간의 미제의 식민지 통치와 략탈 정책으로 인하여 굶주림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생활

온 날을 따라 암담해 가고 있다. 미제의 식민지 통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인민들 속에서는 자주, 자립을 요구하는 새로운 목소리들이 높아 가고 있고 정상배들은 서로 물고 싸우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인민들의 생활이 더욱더 눈에 띄게 좋아지고 경제적 위력이 강화된다면 조국 통일 위업의 실현에 새로운 국면이 조성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 당의 자력 갱생의 원칙과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그의 구현인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방침의 우월성과 그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천을 통하여 더욱 시위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당이 오늘 중공업 부문 앞에 제기한 과업이 조성된 현 조건에서 가장 정당한 조치로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　*

금번 전원 회의에서 명백히 제시된바와 같이 명년에 중공업 부문 앞에 제기된 과업은 두개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

하나는 중공업으로 하여금 인민 생활 향상에 효과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금후 중공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다.

중공업으로 하여금 인민 생활 향상에 효과적으로 복무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경공업과 농촌 경리 발전에 요구되는 기계 설비 및 원료, 자재들을 충분히 생산 공급하는 것이다.

오늘 경공업을 발전시켜 소비품 생산을 증대시키며, 농촌 경리에서 대자연 개조 사업을 진행하며 전반적으로 2모작을 실시하여 단위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대형 및 소형 기계들과 염화 비닐을 비롯한 수지 제품 원료와 화학 섬유, 각종 화학 자재 및 금속 자재들이 방대하게 요구된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고조를 보장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문제도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가 못 하는가 하는 데 크게 달려 있다.

중공업 부문에서 이러한 요구들을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기계 제작 공업을 비롯하여 화학 공업, 금속 공업에 살을 붙여 그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기계 제작 공업 부문에서는 현존 기계 공장들의 생산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한편 그것을 더욱 정비 봉강하고 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소형 선반과 단능 설비 및 특수 설비를 생산 보충하여 기종 간의 불균형과 리용에서의 불합리성을 퇴치하며 자동화 수준을 보다 제고하여야 한다.

특히 개편된 기계 제작 공업에 대한 관리 지도 체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휘시킴으로써 기계 제작 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새 체계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기계 공장들의 정리 사업을 계단별로 정확히 조직 진행하여야 하며 보다 완성된 전문화, 협동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설계 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설계 조건을 잘 보장하여 주며 중요 제품 대상별로 전문 설계 기관을 조직함으로써 설계의 질을 높이며 설계를 생산에 선행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기계 제작 공업 부문에서는 열구 엔진, 관개용 양수기, 뜨락또르, 자동차, 현철 농기계 등 각종 선진 농기계들과 경공업 부문에서 생활 필수품 생산에 요구되는 소형 공작 기계, 프레스, 소형 압연기, 인발기, 수지 가공 설비를 비롯한 각종 기계 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흑색·금속 공업 부문에서는 현존 제철 및 제강소들의 능력을 정비 보강하고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하여 생산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강재의 품종과 규격을 확대하고 재가공 제품의 생산을 더욱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용광로, 평로, 전기로들에서는 원료 공급 체계를 개선하고 기술 공정을 부단히 개선하며 로의 보수 정비를 일층 강화함으로써 현존 생산 설비의 리용률을 제고하는 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선철과 강철 생산을 증대시키며 스프링강, 탄소공구강, 저합금강, 내산 내열강, 구조용 합금강 등 각종 질 좋은 합금강들과 특수강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압연 강재 생산 부문에서는 그 품종과 규격을 더욱 확대하여야 하며 일용품 생산에 절실히 요구되는 얇은 박판, 가는 철선 등의 생산을 결정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

압연 강재 생산에서 박판 생산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현존 생산 능력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박판 로무의 질을 제고하며 황해 제철소 박판 직장의 건설을 촉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현 도금 설비들을 더욱 보충하여 도금판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철선 생산을 증대하기 위하여서는 철선 연신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남포 제련소에서 연신기 설치 공사를 촉진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강관, 와이야 로쁘 생산을 증대시키며 특히 와이야 로쁘 생산에서 연삭 비중을 제고시켜야 한다.

유색 금속 공업 부문에서는 현존 제련소들을 정비 보충하고 제련 실수률을 제고함으로써 동, 연, 아연, 수은 등 각종 유색 금속의 생산을 증대시키며 특히 유색 금속 압연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종 원료 및 부원료 관리 사업과 소결로, 용광로, 전해조 등 설비 관리 사업을 개선하고 표준 조작과 기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남포 제련소 압연 직장의 관재 계통 건설을 추진시켜야 한다.

화학 공업 부문에서는 비날론을 비롯한 화학 섬유와 염화 비닐 등 합성 수지 생산에 력량을 집중하는 한편 질소 비료, 린 비료를 비롯한 각종 화학 비료와 농약 생산을 증대시키며 가소제, 접착제, 각종 염료, 도료, 안료, 화학 시약 등 화학 자재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다.

이를 위하여 명년에 아오지 지구와 흥남지구에 각각 1만 5,000 톤 능력의 압

모니아 생산 능력을 새로 조성하고 홍남 지구에 류린안석회 비료, 합성 뇨소 생산 능력을 새로 조성하여야 한다. 각종 농약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헥사클로란 생산을 증대시키고 디디티 생산을 시급히 정상화하는 한편 2.4 디, 피시피 생산을 촉진시켜야 한다.

비날론과 그리고 염화 비닐을 비롯한 각종 합성 수지 제품 생산을 증대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현존 설비에 대한 보수 정비 사업을 강화하고 기술 관리 사업을 개선함으로써 실수률을 높이며 그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화학 공업과 경공업의 급격한 장성에 따라 산, 알카리 기초 공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특히 인조 섬유, 유리 제품을 비롯한 경공업 제품 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가성 소다, 탄산 소다 생산에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가성 소다 생산 증대를 위하여서는 신설 부문에 대한 기술 관리, 설비 관리 사업을 개선 강화하며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제고시켜야 하며 이와 동시에 이미 있던 가성 소다 생산 계통에 대한 개건 확장 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가성 소다 생산량의 장성에 따라 염소 가스 후처리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동시에 화학 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수은, 카바이드, 전력, 소금 등에 대한 절약 사업을 강화하며 그의 소비 원 단위를 체계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중공업이 인민 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은 또한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체의 생활 필수품 직장을 더욱 확장하며 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여 전기 다리미, 전기 곤로, 세탁기, 선풍기, 랭장고, 재봉기 등 철제 일용품, 라지오, 축음기, 자전거, 유모차, 타자기, 계산기, 시계 등 문화 용품, 옷장, 이불'장, 침대와 안락 의자 등 목재 일용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천리마 대안 전기 공장, 성진 제강소, 영안 화학 공장을 비롯하여 중공업 부문의 거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체의 원료 원천에 기초한 생활 필수품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질 좋은 다종 다양한 일용 필수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함흥 전기 기계 공장 로동자들은 자체로 필요한 설비를 만들어 생활 필수품 직장의 기술을 부단히 개선함으로써 명년에는 금년도 계획에 비하여 생활 필수품 생산을 무려 7 배 이상 장성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으며 성진 제강소에서는 6 배, 강선 제강소에서는 10 배, 순천 화학 공장에서는 7.6 배로 장성시킬 예비를 찾아 내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중공업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존 물질 기술적 토대를 기초로 하여 광범한 대중의 창조적 지혜와 내부 예비를 적극 동원한다면 생활 필수품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대한 가능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하여 준다. 우리 당이 생활 필수품 직장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 생활 필수품 직장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모든 중공업 공장, 기업소들에서 품종 확대와 질 제고에 필요한 설비와 기계, 원료, 자재를 시급히 보장하고 소요되는 로력과 경험 있고 우수한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을 조절 배치하여 생활 필수품 직장을 완전히 정비 확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속히 시제품 생산을 끝냄으로써 년내로 명년도 생산 준비를 갖추며 래년 초 생산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명년에 중공업 부문 앞에 제기된 다른 하나의 과업은 중공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데 있다.

그러한 준비를 위하여서는 공업의 제 1 차적 공정에 속하는 채취 공업과 그리고 전력 공업의 발전을 선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채취 공업을 결정적으로 선행시키는 것은 명년도 중공업 부문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채취 공업의 발전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가공 공업 생산의 증대를 위해 필요한 원료를 보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을 정상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

채취 공업 부문의 모든 지도 일'군들은 채취 공업을 결정적으로 선행시킬 데 대한 당의 의도를 철저히 인식하고 그를 관철하기 위한 사상 동원 사업과 조직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광석과 석탄에 대한 인민 경제의 증대되는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며 일대 비약을 가져 오기 위한 준비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채취 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서는 우선 이 부문에 대한 기본 건설과 설비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이 부문에 대한 보장 사업을 일층 개선 강화하며 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일층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계 제작 공장들과 금속 공장들에서는 권양기, 압축기를 비롯한 기계 설비, 적재기, 레루를 비롯한 수송 기재 등 광산, 탄광 설비들을 책임적으로 생산 공급하여 주어야 한다.

채취 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갱 건설과 굴진을 채굴에 선행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시키는 것이다. 굴진을 선행시킴이 없이는 생산의 정상화와 기술 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광석 및 석탄 생산을 계통적으로 증대시킬 수 없다.

모든 탄광, 광산들에서는 당면한 생산에만 몰두하면서 굴진에 대하여 경시하는 현상을 근절하고 굴진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금, 자재 등을 제때에 보장하여 주어야 하며 고속도 굴진 운동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채취 공업 부문에서 설비에 대한 관리 사업과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광산, 탄광들에서는 공무 동력 직장의 역할을 높여 부속품 생산을 증대시키며 기계 설비들에 대한 점검 보수 사업을 개선하여야 하며 갱내 로력 비중을 증대시키고 로력 조직을 합리화하며 군대와

같은 강한 규률을 확립하고 특히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시켜야 한다.

중공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서는 또한 전력 공업을 결정적으로 선행시켜야 한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급속히 장성하는 전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력 공업의 발전을 다른 부문에 선행시키기 위하여서는 기존 발전소들과 중 소 규모 발전소들의 능력을 제고하며 강계 및 운봉 발전소와 평양 화력 발전소 건설에 력량을 집중하여 그 조업 개시 기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 *

래년도 중공업 부문 앞에 제기된 과업은 물론 극히 방대하고 복잡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확고히 기초하여 제기된 성숙된 요구이다.

문제는 모든 경제 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지도 일'군들이 어떻게 전체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발적 지혜를 계획 실행에로 한결 같이 조직 동원하며 천리마 운동의 대고조를 불러 일으키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

래년도 중공업 부문 앞에 제기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문제는 다른 부문에서와 같이 무엇보다도 모든 지도 일'군들이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의 본질을 깊이 연구 체득하고 그를 무조건 옹호 관철하는 혁명가적 품성을 소유하는 것이다.

특히 금번 전원 회의 결정과 전원 회의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자기 부문 사업과 밀접히 련결시켜 연구한 데 기초하여 그 집행을 구체적으로 조직하며 혁명적으로 관철하여야 한다.

중요한 문제는 또한 성, 관리국,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안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인민 경제에 대한 지도와 기업 관리 운영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활 필수품 생산과 야간 생산에 대한 지도 체계를 확고히 수립하여야 한다

관리 지도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지휘 성원들을 잘 꾸리고 생산에서 그들의 지도 수준을 더욱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그들 속에서 방식상학과 실무 교양을 위주로 하는 상학조의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기술 학습과 실무 학습을 일층 더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반장들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은 오늘 기업 관리에서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들은 생산 현장에 있는 지휘 성원들이다. 그들의 역할 여하에 따라 생산의 성과 여부가 크게 좌우된다. 그들을 고착시키고 그들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술 실무 수준을 높여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 속에서 기술 학습을 강화하고 기술 기능 양성 사업을 개선함으로써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자들을 해당 전공 부문에 조절 배치하고 그들을 고착시키며 연구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중공업 부문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계획화에서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모든 지도 일'군들은 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 규격별로 어김 없이 실행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며 협동 생산 규률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획 수행에 필요한 원료를 정확히 공급하여 주기 위하여 성, 관리국 자재 상사들의 사업 체계를 정확히 수립하고 그의 역할을 일층 높여야 한다.

명년도 중공업 부문 앞에 제기된 과업을 년초부터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명년도 생산 준비와 월동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동기 생산에 필요한 원료, 연료들을 충분히 확보할 것이며 생산과 근로자들을 위한 난방 시설을 완비하여 월동할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춤과 동시에 동기 건설을 위한 준비를 면밀히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월동 준비를 책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공업 부문 앞에 제기된 이상과 같은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는 이에 대한 당 위원회들의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각급 당 조직들은 당 정책 집행 정형을 계통적으로 료해 장악하고 일상적인 지도와 방조를 주며 필요한 대책을 적시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며 사람들과의 사업 특히 간부들과의 사업에 일상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1964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은 7 개년 계획의 웅대한 강령 실행에서 결정적 고리로 된다. 모든 경제 기관들과 중공업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당이 제시한 10 대 과업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성과를 계속 공고 발전시켜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함으로써 1964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에 준비 있게 됩하자.

인민 소비품의 품종을 확대하며 그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하자

박 동 성

1

당 중앙 위원회 제4기 7차 전원 회의는 명년도에 이미 축성하여 놓은 자립 경제 토대에 기초하여 중공업을 계속 급속히 발전시킬 준비와 조건을 갖추면서 전 당이 인민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하여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력사적인 과업을 제기하였다. 경공업 부문 앞에는 3억 메터의 직물 고지를 점령하며, 인민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수지 제품, 금속 제품, 화학 제품, 유리 및 도자기 제품, 목재 가공품, 초물 제품 등 맵시 있고 아름다우며 더욱 질기고 쓸모 있는 다양한 일용품과 맛 있는 식료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함으로써 경공업 제품 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킬 데 대한 중심 과업이 제기되였다.

전원 회의는 명년도에 인민 소비품 생산을 135%로 급속히 장성시키며, 생활 필수품의 품종을 최근 1~2 년내에 3만 종 이상으로 확대하며 모든 제품의 질을 2~3 년내에 선진적 수준으로 높일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새로운 전변을 이룩하는 것은 현 시기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성숙된 요구이며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인민 생활의 부단한 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 당은 시종일관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을 병진시키며 경공업 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데 거대한 력량을 경주하였으며 인민 소비품의 품종을 확대하고 질을 제고할 데 대하여 오래 전부터 심중한 주의를 돌려 왔다. 특히 1958년 6월 전원 회의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여 왔으며 김 일성 동지의 1961년 6월 27일 교시와 창성 교시를 비롯한 일련의 간곡한 교시들에서는 품종 확대와 질 제고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 방도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였다.

경공업 발전을 위한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는 거대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수지하는 바와 같이 해방 전에 일제는 우리 나라를 자기들의 독점적 상품 시장으로, 원료 공급지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수공업마저 말살하여 버렸으며 우리 나라에는 사실상 경공업이 거의 없었다.

해방 후 우리 인민이 새로 건설한 경

공업도 전쟁에 의하여 혹심한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후 빈터 우에 경공업을 새로 창설하는 길에 들어 선 우리는 극히 짧은 기간에 오늘과 같은 현대적인 경공업 기지를 꾸려 놓았으며 인민 소비품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켰다.

우리는 해방 직후 연필, 단추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우리 인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소비품들을 다 자체로 생산하고 있다. 우리의 상점들은 완전히 우리의 손으로 만든 상품으로 꾸려졌으며 인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소비품을 어느 하나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였다.

우리의 인민 소비품은 량적으로 급속히 장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품종도 확대되고 질도 현저히 제고되였다. 각종 염화 비닐 제품이 생산되고 직물과 피복 생산이 점차 개선되여 사람들의 생활은 모든 면에서 더욱 아름답게 되였다.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달성한 이와 같은 성과는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할 데 대한 우리 당 정책의 빛나는 결실이며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을 병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경공업 정책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을 확증하여 준다.

그러나 우리의 경공업은 아직도 응당 갖추어야 할 것을 다 갖추지 못 하였으며 인민 소비품의 품종과 질에서는 부족점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 하고 있다.

나라의 경제와 문화가 전반적으로 발전되고 인민 생활이 일층 향상된 오늘의 현실은 생활 필수품 생산 분야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변을 요구하고 있다.

전쟁에 의하여, 오래 동안 보존하여 오던 모든 가장집물을 다 잃어 버린 우리 인민들은 이제까지는 살림살이를 하나부터 열까지 새로 꾸려야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의식주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고 생활이 더욱 향상된 조건에서 소비품에 대한 새로운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더 질이 좋고 다양한 가지각색의 일용 필수품과 문화 용품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는 구두 한 가지를 가지고 사시절 계속 신었다면 지금에 와서는 철을 따라 신는 각종 신발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촌 문화 주택과 도시의 다층 주택에서 살게 된 근로자들은 이에 어울리는 문화적인 각종 가정 용품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생활이 향상되고 수입이 높아짐에 따라 그들은 라지오, 사진기, 각종 악기류 등 다양한 문화 용품들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인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은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려 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건설하여 놓은 강력한 자립 경제를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력을 더욱 강화하며 보다 부유하고 보다 문화적으로 살려는 우리 인민의 념원을 더 잘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가 지난 기간 허리띠를 졸라 매고 악전 고투하면서 자립 경제를 건설한 목적도 결국은 전체 인민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자는 데 있다. 우리가 력량을 집중하여 강력한 중공업을 건설한 것도 중공업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업에 더 잘 복무케 함으로써 인민 소비품 생산을 증대하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자는 데 있다.

현 시기 인민 소비품의 품종 확대와 질 제고는 거대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우선 인민들의 생활을 더 빨리 향상시키고 나라의 경제 기초를 더 빨리 튼튼히 만드는 것으로 된다.

이 과업의 해결은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면서 문명하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인 숙망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으로 된다.

또한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조국 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열어 놓으며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사회주의 제도의 불패의 힘과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증하는 것으로 된다.

또한 이것은 우리 나라의 대외 무역을 발전시키는 데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와 같이 현 시기 인민 소비품의 품종을 확대하며 그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할 데 대한 과업은 우리들에게 가장 보람 있고 영예로운 전투적 과업이며 특히 경공업 부문 일'군들의 가장 중요하고 영예로운 과업으로 된다.

2

우리가 최근 년간 해결하려는 인민 소비품의 품종 확대와 질 제고의 과업은 종전의 요구에 비하여 훨씬 더 높다.

우리는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생활에 요구되는 모든 제품을 어느 것이나 다 해결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종전에 해 오던 것을 좀더 하는 것이 아니라 세탁기, 랭장고, 전기용품, 각종 문화용품 등 새로운 제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며 우리가 과거에 보지도 못 하고 이름도 모르던 것까지도 우리 인민 생활에 필요한 것이면 다 생산하여야 한다.

우리는 초기에 우선 먹고 입고 쓰는 문제 즉 의복, 신발, 양말 등 대중 용품, 아동 용품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려야 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이 모든 것과 함께 인민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문화 용품, 특수 상품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품종들을 전반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인민 소비품의 품종과 질에서 우리 인민의 각이한 취미와 기호를 다 충족시켜야 한다.

사람들의 성별, 년령별, 직업별 그리고 계절적 및 지역적 특성에 따르는 모든 수요를 다 해결하며 매개 지방의 생활 조건과 관습에 따르는 각이한 기호를 다 고려하여 누구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로동자, 농민 특히 가정 부인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로력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종전에는 매개 가정에서 만들던 각종 부식물까지도 더 많이 공업적 방법으로 생산하여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는 인민 소비품의 질을 전반적으로 선진 수준으로 올려 세워 우리 나라의 인민 소비품이 어느 것이나 국제 시장에서 남의 상품보다 못지 않게 하여야 한다.

1964 년도 인민 소비품 생산의 품종 확대와 질 제고의 구체적 방향은 우선 일용품 공업 부문에서 장성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세탁기, 선풍기, 랭장고, 재봉기, 전기 다리미, 전기 곤로, 그리고 옷장과 이불장, 침대와 안락 의자 등과 법랑 철기, 알루미니움 그릇, 아름답고 질 좋은 도자기와 유리 그릇 등 가정 용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다.

또한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더 많이 요구되는 라지오, 축음기와 악기, 자전거, 유모차, 타자기, 계산기, 사진기, 시계 등 각종 문화 용품을 더 많이 생산하며 우리의 귀여운 어린이들이 세상에 부러운 것 없이 자라게 하기 위하여 보다 훌륭한 학용품, 아동 용품, 운동구, 놀이'감 등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며 신발, 모자, 비옷, 양산, 화장품, 가방, 트렁크, 초물 제품, 아름다운 여러 가지 화학 수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방직 공업 부문에서는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질 좋고 다양한 천을 더 많이 짜야 하며 편직물 생산을 증대하여 내의, 양말, 각종 메리야스 제품의 품종을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피복 가공을 개선하여 더 맵시 있고 편리한 가지각색의 기성복을 더 많이 만들어 공급함으로써 누구나 계절에 따라 좋은 옷을 갈아 입으며 모양 있고 단정한 옷차림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식료 공업 부문에서는 된장, 간장, 기름 등 부식물 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깨끗하고 맛 있고 영양가 높은 각종 식료품을 값싸게 더 많이 생산 공급함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야 한다.

명년도에 인민 소비품의 품종 확대와 질 제고의 전투적 과업은 실로 방대하고 어려운 과업이다.

우리는 인민 소비품의 생산을 량적으로 135%라는 비상히 빠른 속도로 장성시키면서 이 과업을 동시에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이 과업은 몇 년을 두고 단계를 설정하여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최단 기간내에 다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는 인민 소비품의 품종을 확대하고 그의 질을 제고함에 있어서 서서히 하자는 관점을 버리고 결단성 있게 달라붙어야 한다.

비록 우리 앞에 제기된 과업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 당적, 전 인민적 투쟁을 전개한다면 이것은 능히 해결할 수 있다.

현 시기 우리에게는 인민 소비품의 품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그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

지난날 우리에게는 경험도 기술도 없었으나 오늘은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고 현대적 기술과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더 잘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구비되여 있다.

3

인민 소비품의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보장하는 기본 방도는 우선 지도 일'군과 생산자 대중 속에서 한 개의 물건을 만들어도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자기 자신과 후손들의 행복을 위하여

더 알뜰하고 쓸모 있게 성심성의로 만들겠다는 높은 책임성과 공산주의적 사상 관점을 확립하는 데 있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정신이 높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다 알뜰하고 실속 있게 할 것이다. 결국은 사상 문제이다…》(선집 제 6 권, 256 폐지)

품종 확대와 질 제고는 단순한 기술 경제적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세가적 락후성을 완전히 극복하고 인민 생활에서 일대 변혁을 이룩하자는 력사적인 과업으로서 전체 당원들과 근로 대중의 높은 자각성과 사상 동원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치 사업을 선행하여 품종 확대와 질 제고의 중요성과 의의를 정확히 인식시키는 동시에 온갖 낡은 사상 잔재와 인습을 반대하는 날카로운 사상 투쟁을 진행하는 것은 이 과업의 해결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지도 일'군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그들이 당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면한 금액상 계획 수행에만 치중하면서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한 사업을 기술 일'군이나 하부 일'군에게만 일임하고 품종 확대 계획과 질 제고 계획을 미달하거나 시제품 견본품 지어는 어떤 제품의 한 개 부분품을 생산하여 통계 수'자를 늘구는 것으로 이 사업을 대치하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지도 일'군들로부터 공장의 로동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성원들이 제품을 되는대로 만드는 낡은 태도를 결정적으로 버리고 진실로 당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신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여 어느 공장, 어느 작업반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제품을 정성껏 만드는 아름다운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인민 소비품 생산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공업은 단시일 내에 급속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응당 갖추어야 할 것을 다 갖추지 못 하고 중요한 골간들을 형성하여 놓은 데 불과하다. 아직 우리의 경공업은 생산 부문간, 생산 공정 간의 사소한 부족점들을 퇴치하지 못 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우리의 일부 제품들은 완전한 가공을 하지 못 한 채 반제품 상태로 생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생산 부문과 공정간에 빠진 공정들을 새로 보충하고 일부 불합리한 것들을 통합 정비하여야 한다.

현존 공장들을 더욱 규모 있게 알뜰하게 정비하며 모든 공장에서 생산 공정의 기계화를 적극 실현하는 것은 생산의 량적 장성에서 뿐만 아니라 품종 확대와 질 제고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모든 공장의 정비 방향과 선후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망성 있게 꾸려 나가며 공장의 기술적 장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

우선 식료 공장을 더 잘 꾸리는 데 력량을 집중함으로써 모든 식료 공장들이 원료의 반입으로부터 완제품의 포장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작업 공정을 기계화

하며 생산 문화를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방직 공장들에서는 염색 및 후처리 가공 공정을 잘 정비하고 매개 도에서 소형 염색 시설을 갖추며 가공 기술을 전반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직물의 색갈과 문양을 일층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제지 공장들의 정비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최단 시일 내에 모든 제지 공장들에서 팔프 생산 공정과 초지 공정을 완전히 꾸리며 특히 팔프 선별 장치를 갖춤으로써 종이의 질을 더욱 제고하여야 한다.

특히 일용품 공장들에서 각종 철제 일용품의 품종을 확대하고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금 전문 직장과 형타 직장을 꾸리고 그 기술 장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경공업 기업소들의 정비 사업과 함께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 체계를 옳게 세우는 것은 극히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설비 리용률을 높이고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며 생산의 급격한 량적 장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품종 확대와 질 제고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현행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심중한 타산과 세밀한 준비 밑에 수송 조건, 원료 보장 조건, 기업소의 설비 및 기술 상태와 생산 조건 등 제반 조건을 세밀히 연구하고 타산하여 순차별로 전국적 및 지방적 전문화 체계를 세우며 선후차를 정확히 규정하고 한 부문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화 체계의 중요 방향은 된장, 간장을 비롯하여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제품들은 군 자체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며 비교적 높은 기술을 요하고 군에서 생산하기 적당치 않은 품종은 도'적으로 전문화 하도록 하며 더욱 높은 기술이 필요하고 중앙적으로 원료를 보장하며 몇 개의 공장에서 생산하여 전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들과 중앙적으로 다량 공급하는 직물, 신발을 비롯한 중요 제품들은 지역적 및 전국적 범위에서 전문화하는 것이다.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의 전문화는 원칙적으로 품종을 축소하지 않고 품종을 확대하는 조건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전문화를 한다 하여 이미 생산하던 품종을 다 집어 치우고 하기 쉬운 몇 가지 품종만 생산하려는 경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반대로 품종을 전문화하지 않고 설비 원료 등 구체적인 조건도 타산하지 않고 한 기업소에서 수백 품종을 생산함으로써 며칠에 한 번씩 생산을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 소비품의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하여 중공업 부문 특히 기계 공업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공업은 경공업에 더 잘 복무함으로써 경공업에 필요한 방직 설비, 제지 설비, 식료 가공 설비, 소형 공작 기계, 공구, 지구, 계기, 실험 기구, 형타 직장 조직에 필요한 설비 등 각종 기계 설비들을 더 좋게 더 많이 책임적으로 생산 공급함으로써 경공업 공장들의 기계화를 적극 추진시키며 자체 내에 생활 필수품 직장을 신설 확장하고 기술 장비를 개선 강화하여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질 좋은

각종 칠제 일용품, 가정용품, 문화 용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인민 소비품의 질을 제고하고 품종을 확대함에 있어서 원료의 질을 높이며 그 공급을 정상화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원료의 정확한 보장— 이것은 인민 소비품의 생산량을 증대하며 품종을 확대하고 질을 제고하는 기본 고리로 된다.

우리는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더욱 발휘하여 이미 축성한 원료 기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원료 기지를 대대적으로 확장하여야 한다.

국가 자재에만 의존하면서 우에서 보장해 줄 것만을 기다리는 경향을 철저히 퇴치하고 자체의 원료 기지 조성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원료 기지 조성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공장의 원료로 직접 쓸 수 있는 것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경공업 부문에서 원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소형 화학 공장을 광범히 조직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년도 인민 소비품의 품종 확대와 질 제고에 대한 방대한 과업은 중공업 부문과 농업 부문에서 질 좋은 원료를 더 많이 제때에 공급해 줄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만약 질 좋은 원료를 제때에 공급해 주지 않고 월말이나 년말에 가서 일시에 공급해 주게 되면 생산 기업소에서는 생산에서의 파동성을 극복할 수 없게 되고 질 제고에 관심을 돌릴 수 없게 된다.

중공업 부문에서는 생활 필수품 생산에 필요한 염화 비닐을 비롯한 수지 제품 원료와 화학 섬유, 그 밖에 가소제, 가성 소다, 탄산 소다 등 각종 화학 자재와 각종 규격의 금속 자재를 제때에 질 좋게 생산 공급하여야 하며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더 질 좋은 목화, 아마, 대마, 잠견 등 각종 섬유 원료, 유지 작물, 담배 등을 제때에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하여 조직 지도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민 소비품의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한 사업은 구체적인 조직 사업을 요구하는바 그것은 인민 소비품 생산의 특수성과 관련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인민 소비품은 전국 도처에서 그에 대한 수요가 비할 바 없이 다양하며 잠시도 중단함이 없이 계속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어느 제품을 막론하고 한 가지를 만드는 데도 여러 가지의 설비, 자재, 기술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일반적 호소만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으며 빈틈 없는 구체적인 조직 사업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지난 기간의 경험은 구체적인 조직 사업이 보장되지 못할 때에는 생산이 중단되거나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한 사업이 옳게 해결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하여 우선 계획화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품종 확대와 질 제고 계획은 반드시 생산 계획과 밀접히 련관시켜 보장 조건이 정확히 맞물리도록 작성되여야 하며 계절과 년령, 성별, 기호에 따라 수요에 맞게 품종별, 재질, 형태, 규격, 색갈별로 빠짐 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화 사업에서 군중 로선을 더 잘 관철함으로써 설비 상태, 원료, 자재, 로력 등 생산의 모든 요소들과 대중의 수요를 면밀히 타산하여 계획의 과학성과 현실성을 정확히 보장하며 계획 실행에서 품종별 생산에 대한 엄격한 규률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하여 제도와 규률을 강화하며 생산에 대한 기술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제품의 표준을 규정하고 그에 의하여 반드시 생산하도록 규률과 제도를 정확히 세울 것이며 특히 원료를 쓰는 첫 공정부터 제품의 포장, 상표에 이르기까지 매개 개별적 품종에 대한 검사 제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하여 과학 연구 기관들과 그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며 기술 기능자 양성 사업을 강화하고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생활 필수품 생산기술을 소유한 기술자, 고급 기능자들을 다 찾아서 적재 적소에 배치하여 일하도록 하며 모든 기업소들의 기능공들을 고착시키도록 심중한 주의를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하여 중앙 및 도, 시에 견본 전람관을 꾸리며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는 매 공장에는 상품 견본실을 조직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하여 생산자들의 적극성과 창의 창발성을 적극 발양하도록 도덕적 및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질을 제고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품 등급 차이에 따르는 로임의 차

이를 정확히 설정하며 제품의 등급에 따라 가격 상 현저한 차이를 두는 방향에서 가격을 개정하며 규격 및 가격 제정 사업에서 번잡한 사무 절차를 극력 간소화하여 지나친 실무적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품종 확대와 질 제고에서 우수한 생산자들과 단체들을 정확히 평가하여 주며 제품에 대한 사회적 합평 사업을 조직하는 등으로 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한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시킴으로써 지도 일'군들이 직접 하부에 내려 가서 걸린 문제를 풀어 주며 한 점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여야 한다.

* *

인민 소비품의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한 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이룩하는 결정적 담보는 각급 당 조직들이 당이 제시한 방침을 튼튼히 틀어 쥐고 철저히 관철시켜 나가는 데 있다.

최단 기간에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품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할 데 대한 이 방대한 과업은 결코 해당 부문 일'군들의 힘만으로써는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곳에서 오직 전 당적 전 인민적 투쟁을 전개할 때에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각급 당 조직들은 제 4 기 7 차 전원 회의에서 제시된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철저히 해설 침투시키며 그를 정확히 관철시키기 위한 조직 지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도처에서 새로운 혁신과 기적이 창조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미제의 전쟁 정책과 미국 독점 자본

김 룡 천

미제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은 미증유로 자라난 독점 자본의 지배와 그의 리해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일찌기 레닌은 제국주의 전쟁의 성격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 전쟁의 진정한 사회적 성격, 보다 정확히는 진정한 계급적 성격의 증명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전쟁의 외교사 가운데서 찾아질 것이 아니라…경제 생활의 기초에 관한 자료의 총체를 취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전집 제 22 권, 243 페지)고 하였다.

그러므로 독점 자본이 존재하는 한,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의 근원은 사라지지 않으며 제국주의 정책에서의 《전환》, 《변화》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제국주의에 복무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현대 군사 과학의 발전, 열핵 무기의 출현을 론거로 삼으면서 미제 침략 계층의 《리성》, 그들의 전쟁 정책에서의 《변화》를 운운하며 미제가 더는 전쟁 정책에 리해 관계를 가지지 않게 되였다고 떠들고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배신자들의 이러한 기만이 핵 전쟁의 공포증에 사로잡혀 미제의 전쟁 정책의 본질을 보지 않으려 하며 맑스-레닌주의의 계급 투쟁의 원칙을 부인하며 미제의 전쟁 정책을 엄폐하며 세계 인민들의 혁명적 의식과 투지를 마비시키려는 추악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미제의 전쟁 정책과 미국 독점 자본과의 호상 관계, 미제의 전쟁 정책에 반영된 그의 정치와 경제의 호상 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해명하는 것은 현 시기 미제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미화 분식하는 부르죠아 반동 변호론자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리론》을 분쇄하며 인민 대중을 미제의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궐기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

미국 독점 자본은 미제의 대외 침략, 전쟁 정책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으며 야수적인 전쟁 과정에서 비상히 팽창되였다.

특히 제 1 차 대전과 제 2 차 대전은 미국 독점 자본을 전례 없이 급격히 비대케 하였다. 전쟁은 문'자 그대로 미국 독점 자본가들에게 황금의 《소나기》를 퍼부었다. 1 차 대전 전까지만 하여도 구라파의 채무자였던 그들은 대전 후 거대한 채권을 가지게 되였으며 대전 전의 경제의 심한 불경기는 전시와 전후의 급격한 앙양으로 바뀌였다. 공업 생산은 1913~1929 년간에 70% 나 장성하였고 상선은 전쟁 기간에만도 실로 10 배 이상이나 증가하였다. 대독점 회사들의 순 소득 총액은 1912년에는 38억 딸라였는데 1917년에는 벌써 105억 딸라에 달하게 되였다.

이와 같이 1 차 대전은 미국 독점 자본의 지위를 급격히 제고시켰으며 20 년대의 미국의 《번영》을 초래하였다. 이리하여 생산의 집적과 집중 과정이 가일층 촉진되였다.

미국 독점 자본의 발전과 치부에서 제 2 차 대전이 준 영향은 제 1 차 대전에 비할 바 없이 크다. 실례로 미국의 전쟁 상인들은 인민들의 희생의 대'가로 270억 딸라의 순 리윤을 얻었으며 생산 자본을 2 배 이상 증대시켰다. 1939~1944년까지의 5 년 동안에 미국의 공업 생산량은 1.5 배나 증가하였는데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자본주의 세계 공업 생산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훨씬 초과하게 되였다.

그러나 제 2 차 대전 후 미국 독점 자본은 전시에 진행한 공업의 미증유의 확장과 전후의 생산 능력의 엄중한 과잉을 한편으로 하고 근로자들의 빈궁화로 인한 상품 판로의 위축된 상태를 다른 편으로 하는 사이의 첨예한 모순이 지체 없이 독점 자본가들을 위협하게 되였다. 대전 기간에 급격히 비대해진 미제의 방대한 《과잉》 자본은 즉시 유리한 투하지를 갈망하게 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대전 후 변동된 력량 관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변시키며 사회주의 진영을 《제거》하고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 말살함으로써 세계 제패 계획을 실현하려는 정치적 망상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게 되였다.

이리하여 미제는 경제를 대대적으로 군사화하고 전쟁 준비를 강화하며 전쟁 도발 책동을 로골화하는 데서 출로를 찾으려고 발광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 전쟁의 도발은 그의 가장 명백한 증거로 된다. 조선 전쟁 시기 미국의 군사비 지출과 군수 생산은 실로 지난 대전 시기의 수준에까지 접근하였다. 가공 공업의 생산 능력은 1939~1946년의 8 년간에 31% 장성하였는데 1950~1953년의 4 년 동안에는 25% 장성하였다.

조선 전쟁 시기에 진행된 거액의 전시 투자는 비행기, 화학, 특수 금속, 원자 무기 공업 등 분야에 집중됨으로써 경제의 군사화가 보다 높은 단계에 들어 서게 되였다. 전쟁은 미국 경제를 제 2 차 대전 후에 래습한 첫 과잉 생산 공황(1948~1949년)의 와중에서 《구원》하였다.

조선 전쟁에서의 미제의 패배와 정전의 실현은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보다더 심화시켰다. 조선에서 정화가 실현된 이후 1953년~1954년 공황이 닥쳐 왔으며 또 그 상처가 미처 회복되기도 전에 1957~1958년 공황의 큰 파도가 휩쓸게 되였다. 그에 뒤'이어 1960~1961년의 공황이 일어 났으며 지난해 말부터 경제의 극심한 침체가 닥쳐 오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미제 지배층들은 병든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으며 《세계적 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더 랭전을 고취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년간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

여 감행된 큐바에 대한 무력 침공, 남부 월남에서의 《선전 포고 없는 전쟁》, 라오스에서의 내전 확대를 위한 책동, 남조선, 대만 등에서의 군사적 소동, 인민 중국을 반대하는 인도 반동층에 대한 군사적 사촉 등 끊임 없는 침략과 전쟁 소동은 바로 그것을 말하여 준다.

미제는 이를 위하여, 극히 축소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조선 전쟁 후 지난 《평화적》 10 년간(1954~1963년)에 군사비로 4천억 딸라나 지출하였다. (그의 절반은 각종 열핵 무기 생산을 위한 데 지출되였다) 케네디 행정부는 1963~1964 회계 년도에 군사비(간접 군사비까지 포함하여)로 국가 예산 총액의 80% 이상을 책정하고 있으며 년간 총 생산물의 25~30%를 군사적 수요에 탕진하고 있다.

미제 지배층들은 이와 같이 방대한 군사비 예산에 기초하여 침략과 전쟁 도발 준비를 위한 《전쟁 전략》을 작성하고 있으며 나토, 쎄아토, 쎈토 등 각종 침략적 군사 쁠럭들을 조작하여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포위망을 형성하며 세계 도처에 침략적 군사 기지들을 확장하고 있다. 그들은 《전쟁 전략》에 의거하여 전면 핵 전쟁을 위한 준비를 발광적으로 추진시키는 한편 상용 무기 생산을 자극하기 위한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 도발에 광분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부분적 핵 시험 금지 조약의 기만적 간판 뒤에서 핵 무기의 완성과 그 생산의 확대를 위하여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부분적 핵 시험 금지 조약이 성립되기 바쁘게 미제는 불란서에 새로운 핵 비밀을 제공할 데 대하여 주동적으로 제의하였으며 카나다와 핵 탄두 공급에 관한 비밀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핵 장비를 둘러싸고 서독과의 《군사 협조》를 강화할 데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발광적인 군비 확장과 전쟁 준비의 주되는 목적의 하나는 미국 독점체들의 군수 생산을 위한 인위적인 경기를 조성하는 데 있으며 그들의 전쟁 정책 역시 미국 독점체들의 리해 관계를 반영하며, 그에서 직접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2

그러면 이와 같은 계속적인 군비 확장과 전쟁 정책이 미국의 사회 경제에 어떠한 현상들을 산생하고 있는가?

독점 자본은 전쟁 정책의 어떠한 고리들을 통하여 팽창되는가?

오늘 미제의 정치, 경제적 제 모순의 첨예화와 장기간에 걸치는 전쟁 정책의 주요한 결과는 정치에서의 반동화의 비상한 촉진, 그리고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군사적인 국가 독점 자본주의에로의 전화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지배적 독점들에의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완전한 종속, 독점 자본과 군벌과의 인적 결합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오늘 미국의 금융 대왕들은 군비 확장과 전쟁 정책을 강요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는 파쑈적 통치 체계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긴장 상태를 부단히 격화시키고 있으며 독점체들의 권력과 국가의 권력을 하나의 기구로 융합시키고 있다.

전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살인 장군으로 악명 높은 현역 군인 출신이였고, 현 대통령 케네디 형제는 반공 특무의 《총아》로 미국 독점 자본가들 사이에서도 이미 관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전후 국방 장관들은 모두다 대자본가들이였고 (현 국방 장관 맥나마라는 《포드》 자동차 회사의 사장을 지낸 자로서 군수 생산과 아주 밀접한 련계가 있다) 국방 차관, 륙, 해, 공군 사령관들도 역시 그들 자신이 자본가이거나 혹은 독점 자본가의 수급 사환'군들이다. 동시에 많은 퇴역 고급 장교들이 독점 회사들의 지배인, 리사장, 중역 등의 자리에 추대되고 있는데 1959년 현재 100 개의 대회사들에 채용된 이런 자들의 수는 1,400 명 이상에 달하였다.

대 독점 자본가-관료-군벌, 바로 이러한 인적 결합은 미국의 지배층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나라가 하나의 커다란 《군사-산업적 결합체》이며 행정부와 군부는 최대한의 리윤 획득을 지상의 과업으로 삼는 대독점들의 공동 봉사 기관으로 행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제의 군사화와 전쟁 정책에서의 독점체들의 치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의 거액에 달하는 군수품 구매와 주문에 의하여 보장된다. 여기서 부르죠아지를 위한 국민 소득의 재분배 수단으로서의 국가 예산이 결정적인 역할을하고 있다. 국가는 광범한 로동자, 농민들로부터 짜낸 막대한 세금의 대부분을 공개된 또는 은폐된 형태로서 군사비에 돌리며 독점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시장과 상품의 판로를 제공하며 만성적인 조업 부족으로 허덕이는 기업들에 《활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리하여 군수품 주문의 접수, 국가에의 군수품의 판매는 독점 자본이 군사비의 기본 담당자인 근로 대중을 착취하여 거액의 리윤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는 기본 통로로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생산의 집적과 집중을 촉진시키게 된다. 실례로 1961~1962 회계 년도의 군수품 생산 계약 총액의 약 80%를 100 개의 대군수 기업체들이 담당 수행하였다. 군수품 생산이 독점체들을 얼마나 비대케 하는가 하는 것은 《제네랄 모터스 회사》(여기에는 퇴역 고급 장교들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다)의 실례가 말하여 주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대전 시에 85억 딸라에 달하는 주문을 받아 정부 투자금으로써 100 여 개의 새 공장을 건설하고 낡은 공장들을 개건 확장하였으며 현재 88억 딸라의 자산과 53만 명의 종업원을 가진 최대의 독점체로 자라났다. 기타의 대회사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와 류사하다.

군수품 생산에 대한 이러한 국가의 주문은 독점체들로 하여금 국가로부터 각종 기술적 특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국가는 군수품 생산과 관련된 기술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각종 보조금과 장려금을 독점체들에게 제공한다. 지금 미국에서 새 기술 도입에 지출되는 비용 총액의 60% 이상은 정부가 출자하고 있는데 그의 압도적인 부분은 군수 기업체들에 배당되고 있다.

국가로부터 기술적 특혜를 받은 독점체들은 그것을 다만 군수품 생산 부문

만이 아니라 소비재 생산 등 기타 부문에까지 도입함으로써 시장 쟁탈전에서 자기들의 우위를 보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는 경제의 군사화와 전쟁 정책에서의 각종 경제적 《조절》 및 《통제》 시책들을 통하여 독점들에게 독점적 리윤을 보장해 주고 있다.

대독점 자본의 직할 사무소인 정부는 주요 제품(그것은 주로 군수품이다)의 생산량과 판매량을 독점체들에 《할당》하고 있으며, 독점이 생산한 전략 물자들과 무기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 매점하는 가격 《조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례로, 전후 군수 물자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10~12 배나 인상되였으며 1951~1960년에 판매된 거의 같은 대수의 군용 항공기와 민용 항공기의 가격 총액을 대비한다면 군용 항공기의 가격 총액이 민용 항공기의 가격 총액의 5 배에 달한다.

이밖에도 가격 《조절》 대책에는 증대되는 군사비 지출을 더 강화하는 방향에서의 세납 조치의 실시, 국가 수입 및 지출 항목의 변경, 군수 생산 독점들에 대한 저리 신용 대부, 공채와 지폐의 란발 등 금융 거두들에게 리롭게 작용하는 기동성과 신축성을 가진 각종 시책들이 포괄된다.

국가적 《통제》도 이에 못지 않게 군수품 생산에 봉사하고 있다. 정부는 《특수 물자》의 명의로 일련의 희유 금속을 비롯한 중요 원료들과 설비들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군수 생산 독점들에게 돌려 주고 있다. 또한 제품의 규격 제정 및 검사 등을 구실로 중소 기업소들을 제한하면서 대독점들에 의한 군수품의 대량 생산을 비호해 준다.

미국 독점 자본이 경제의 군사화와 전쟁 정책을 상투적인 《반공황 대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리유 없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러한 군수품 구매와 주문, 《조절》과 《통제》 등이 병든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일시적인 《수혈》로 되기 때문이며, 독점들에게는 막대한 리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의 군사화와 전쟁 준비로 인한 대독점의 치부와 세력의 강화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들은 이른바 《국가 소유》에 의해서도 막대한 리윤을 짜내고 있으며 그의 거의 전부가 군수 생산 및 봉사와 관련된 《국영》 경리의 진정한 주인은 사실 상 사독점 자본가들이다. 지난 대전 시기 미국 련방 정부는 군수 생산에 직접 거액의 투자를 하였다. 1939~1945년에 증대된 가공 공업의 생산 능력만도 260억 딸라에 달하였는데 그의 3 분의 2는 정부가 투자한 것이였다. 그런데 정부가 투자한 것들은 전시에 이미 독점 자본가들에게 《임대》되였으며 후에는 그들에게 눅은 값으로 양도되였다. 전후에는 국가 투자에 의하여 특히 최신 무기를 생산하는 《국영》 기업들이 수 많이 건설되였다. 그러나 《국영》 기업이란 단지 명색에 불과한 것이고 그의 실제적 주인은 대군수 독점들로 되여 있다. 국가는 이러한 군수 기업들의 관리 운영을 전적으로 대독점 자본의 대표자들에게 내여 맡기고 있다. 실례로 국회 직속

《원자력 위원회》 산하 기업소들은 《도우 케미클 컴퍼니》, 《제네랄 엘렉트릭크》, 《유니언 카바이드》 등과 같은 전기, 화학 부문의 대콘체른들에 완전히 장악되여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국가가 《국가적 소유》라는 명의로 독점의 리익에 복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미제의 전쟁 정책과 독점 자본과의 호상 관계에서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타국에 대한 소위 《원조》이다. 월가의 강도들은 저들의 대외 팽창 정책을 《원조》 라는 간판으로 분식하고 막대한 《과잉》 자본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낡고, 체화 상태에 있는 군수품들을 《피원조국》들에 고'가로 팔아 넘김으로써 막대한 리득을 보고 있다.

군사 《원조》의 략탈적 성격은 그에 의하여 육성 되는 《피원조국》의 현지 고용 군대가 문'자 그대로 눅거리 대포'밥으로 되고 있다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군 1 명을 1 년간 해외 군사 기지에 주둔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에 비한다면 현지 고용 군대 비용은 그의 20 분의 1도 못 된다. 이와 같이 군사 《원조》에서 얻은 미국 독점 자본가들의 《절약》과 리익은 실로 막대한 것이다. 얼마 전에 미 국방 장관 맥나마라가 예산에서의 군사 《원조》의 증대를 요구하면서 그것이 비단 미국의 대외 정책과 군사 전략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적 및 재정적 자원을 보존하는 수단으로서…자체의 리익에 부합》되며 이러한 군사 《원조》비의 지출로 말미암아 《지불 발란스에서의 결손은 더 커지지 않을 것이며 해외에 나가는 이 기금의 80% 이상은 미국내에서 소비될 것이다》라고 한 것은 《원조》를 리윤 획득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미 제국주의의 전쟁 정책과 독점 자본의 호상 관계에 대한 분석은 그의 침략과 전쟁 정책이 어떤 개별적인 집권자들이나 장군들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독점 자본이 지배하는 그 경제적 기초에 의하여 산생되며 독점 자본의 리해 관계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즉 백악관의 일체의 정책은 곧 월가의 의사를 대변하며 펜타곤의 전쟁 계획은 다름 아닌 록펠러, 듀폰, 모르간 등 금융 대왕들의 탐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은 미국 독점 자본의 지배와 전횡에 기초한 미제의 대외 정책의 기본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독점 자본의 지배가 존속되는 한 미제의 전쟁 정책에서의 《변화》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또한 제국주의의 반동적 리론가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미제의 전쟁 정책에서 그 어떤 《전환》, 《변화》에 대해서 떠들면서 케네디를 《평화의 사도》로 묘사하며 그의 《리성적》 정책에 대하여 운운하는 것이 순전한 기만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미 제국주의, 이것은 미증유로 팽창된 독점 자본의 전능이며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세계 반동의 지주이다. 미국 독점 자본의 지배가 존속하는 한 미제는 전쟁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며 세계의 진정한 평화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미제의 침략, 정책의 《전환》에 대한 그 어떠한 사소한 《환상》도 황당한 것이며 그것은 혁명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칠 뿐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제에 대한 《환상》을 류포시키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더러운 책동이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로부터 철저한 규탄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모든 곳에서 미제를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며 미제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줌으로써만 그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제어할 수 있다.

세계 인민의 공동의 원쑤인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극동에서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기여를 하여 온 조선 인민은 한 손에는 무기를, 다른 한 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앞으로도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과 더불어 미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남반부에서 미제를 몰아 내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것이며 사회주의 동방 초소를 굳건하게 보위할 것이다.

남조선 농촌에서의 계급 분화의 특성

윤 상 우

1

남조선 농촌에서의 계급 분화와 농민들의 처지에 대한 과학 리론적 구명은 농민 각 계층을 반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에서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령도를 정확히 보장함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오늘 남조선 농촌에서의 계급 구성은 일제 강점 시기와 마찬가지로 지주, 부농, 중농, 빈농 및 고농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2 차 대전 후 국내외 정세의 변화와 그리고 일제와 미제의 식민지 경제 정책의 차이점 등 제 조건에 의하여 지주 계급 및 농민 내부의 계급 분화에서는 일련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민지에서의 봉건적인 토지 소유 제도의 와해 과정은 외래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저지되거나 정체된다.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이 봉건적인 제 관계를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의 유지와 식민지 초과 리윤 획득을 위한 유리한 지반으로 리용하기 때문이다.

해방 후 북반부에서 실시된 토지 개혁의 영향 하에 토지를 요구하는 남조선 농민들의 치렬한 투쟁에 의하여 위기에 처하였던 지주 제도는 미제의 비호 하에 인공적으로 유지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지주 계급은 일제 시기와 동일한 형태로 지주 제도를 존속시킬 수 없게 되였다. 그것은 주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에 유리하게 전변된 국내외 정세와 토지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투쟁의 가일층의 앙양 등 사회 정치적 제 조건에 의한 것이였다.

남조선에서 지주 계급은 조성된 정세와 계급적 력량 관계가 변화된 조건 하에서 종전과 같이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그것을 공공연히 소작 주며 고률의 봉건적 소작료를 농민들로부터 착취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지배 체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미국 독점 자본도 남조선 농촌에서 지주를 계급으로 보존하며 그들을 조선 침략의 동맹자로 리용하고 있으나, 소수의 대지주들에 의한 대규모의 토지 집중은 도리여 식민지 통치를 위하여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유리하지 못 하다고 타산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농촌에서 사회적 위기를 더욱 조성할 수 있으며 자국의 과잉 농산물의 유리한 투매와도 일정한 모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남조선에서 대지주들의 존재는 필경 그들에 의한 상품 농산물의 독점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결국 미국 독점 자본

이 자국의 과잉 농산물을 남조선 시장에 자유롭게 투매하며 식민지 초과 리윤을 획득함에 리롭지 못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남조선 농촌의 봉건적 토지 소유 제도의 지배와 부농 경리 발전의 일정한 제한성 및 방대한 잠재 실업자의 존재는 중 소 지주 대렬이 확대될 수 있는 유리한 지반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미제는 남조선의 대지주들을 예속 자본가로 전환시키는 한편 농촌에서 기본적으로 중 소 지주 대렬을 보호 육성하게 되였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실시한 기만적 《농지 개혁》은 미제의 남조선 지주 계급에 대한 이상과 같은 정책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계기로 되였다.

지주들은 《농지 개혁》을 통하여 자기들의 소작지의 적지 않은 부분을 《자경지》의 명목으로 은폐하였거나 괴뢰 정부의 《매상》에 응하였다. 그 결과 대지주는 현저히 감소되고 중 소 지주 대렬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농지 개혁》 후 농민들에 대한 추가적 수탈의 강화에 따라 농민 경리의 령락이 촉진됨으로써 지주들의 수중에로의 토지의 재집중이 또다시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은 대지주 토지 소유를 제약하는 사회 경제적 조건의 작용으로 하여 중 소 지주 대렬의 확대를 촉진하였으나 대지주 대렬의 확대를 초래하지는 못 하였다.

지주 수중에로의 토지의 재집중이 진행됨에 따라 지주적 토지 소유는 그 규모에 있어서 일제 시기의 수준에 거의 접근하고 있다.

1961년에 경상남도 밀양군, 전라북도 정읍, 전라남도 구례군 및 경기도 리천군 내 몇개 부락들의 농가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의하면 지주적 토지 소유 규모는 총 경지 면적의 약 절반에 달한다. (《사상계》 1962년 6 호 82 페지, 《신 경제》 1961년 5 호 83 페지)

해방 후 남조선 지주 계급의 구성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특성—대지주의 감소와 중 소 지주 대렬의 증가—은 지주 계급 내부에서 대지주에 의한 중 소 지주의 구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주로 지주 제도의 불안정성의 증대, 미국 독점 자본의 압박 등 사회 경제적 제 조건에 의하여 이루어진 현상이다. 그것은 또한 남조선에서 미국 독점 자본의 압박과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가 현존하는 조건 하에서 민족 공업 뿐만 아니라 부농 경리 발전에도 제약성이 가하여지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부유한 농민들도 축적된 자금을 생산 자본화할 대신에 토지를 구입하여 지주로 변생하는 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리하여 남조선의 지주들은 자기의 토지를 공개적인 것과 함께 반 공개적 및 비공개적 방법으로 소작 주고 있다. 소작 관계의 반 공개적 및·비공개적 성격은 지주와 소작인 간의 인신적 예속을 심화시키고 소작료를 높이며 소작 기간을 단축시킨다.

남조선 농촌에서의 현실적 소작료는 《농지 개혁법》이 규정한 《공정》 소작료인 수확고의 30%를 훨씬 초과하여 수확고의 50~7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소작 기간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년을 초과하는 례가 드물다.

지주는 그 구성과 착취 방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 하에 의연히 농촌의 지배적인 착취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

남조선 농민들은 지주 계급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미국 독점 자본과 남조선 예속 자본에 의하여 2중 3중으로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당하고 있다.

괴뢰 정부와 그 산하 각급 기관들에 의하여 감행되는 각종 조세와 기타 가렴 잡세, 신용 체계와 독점 시장 가격 정책에 의한 농민 수탈은 그 규모에 있어서 일제 시기의 수준을 현저히 릉가하고 있다.

해방 후 특히 남조선 지주, 부농들의 고리 대금에 의한 농민 수탈 규모는 미증유의 속도로 확대되였다. 농민들의 고리 부채액은 정전 후 기간에만도 20 여 배로 장성하였으며 그 리자률도 현저히 높아졌다.

남조선 농민들에 가하여지는 이러한 가혹한 착취는 농촌 경리의 령락을 촉진시키며 농민 내부에서 계급 분화를 심화시키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러면 남조선에서 농민 내부의 각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데 둘 것이며 계급 분화의 특성은 어데 있는가?

농민 내부의 각 계층의 구분은 경지 면적의 규모와 농가들의 고용 로동 사용의 크기 및 농가 생활 정형의 호상 련관에 기초하여야 한다. 물론 토지가 농업에서 기본 생산 수단이니 만큼 경지 면적 규모는 농민 각 계층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 징표의 하나로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지 면적 규모는 농업 경영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반영함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성을 갖는다. 왜냐 하면 집약적 농업이 보다 광범히 또 급속히 발전하면 할수록 경지 면적 규모에 의한 농민 각 계층의 구분은 빈한한 농민들의 처지를 더욱 분식하며 빈농과 부농 경리와의 대조적 차이를 은폐한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 각 계층의 구분은 경지 면적의 규모와 더불어 고용 로동자 사용의 크기와 수지 상태에 상응하는가 어떤가를 보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 남조선 농업 경영에서 집약화 수준은 그리 높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집약적 농업이 거의 보급되지 못 하고 있다. 농업 경영에서 집약화 수준이 비교적 높은 일부 지역 례컨대 대도시 근교와 상품 농작물 재배 지역에서 집약적 농업을 진행하는 농가들은 남조선 농가 총수의 1.3%에 미치지 못 하는 극히 적은 비률을 차지하고 있다.

이리하여 남조선 농업의 현재 수준으로는 경지 면적 규모에 의한 농가 계층의 분류가 그래도 비교적 현실적 상태를 근사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부농을 2 정보 이상, 중농을 1~2 정보, 빈농(고농 포함)을 1 정보 이하의 경영 규모를 가진 농가로 보면 약간의 례외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용 로동 사용의 크기와 농가 영농 수지 관계에도 기본적으로 상응한다.

2 정보 이상의 경영 규모를 가진 농가들에서는 년간 농업 생산에 투하된 로동 총량 중 50% 내외의 고용 로동을 사용하고 있으며 년간 수입으로 생계비

와 영농 상 및 기타 지출을 충당하고 난 후에 다소의 잉여를 남기고 있다.

1~2 정보의 영농 규모를 가진 농가들에 있어서는 다소의 고용 로력을 사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기와 가족 로력에 의하여 영농하고 있으며 년간 수입으로 얼마 간의 생계비 부족을 느끼고는 있으나 생활 수준을 최저 생계비 이하로 다소 낮추는 방법에 의하여 단순 재생산은 실현할 수 있다.

1 정보 이하의 영농 규모를 가진 농가들에 있어서는 년간 영농 수입과 품팔이로 번 수입을 합하더라도 년간 최저 생계비의 태반을 보충하지 못 하는 빈농과 고농 계층이다.

이러한 제 사실은 상기와 같은 경지 면적 규모가 남조선 농민 각 계층을 구분하는 근사한 기준으로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농민 각 계층을 구분하고 그들 내부의 계급 분화를 보면 거기에는 하나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민 내부에서의 계급 분화란 중농 계층 농민을 희생으로 하여 부농 계층과 빈농 고농 계층을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해방 후 시기 총체적으로 보아 남조선에서의 특성은 빈농과 고농 계층의 비중이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빈궁화가 촉진되고 있는 반면에 부농 경리의 발전이 일정하게 정체되고 있는 점이다. 1945~1960 년간에 농가 총 호수에서의 영농 규모 1 정보 이하의 빈농(고농 포함)의 비중은 65.3%로부터 73.1%로 높아졌으나 2 정보 이상의 영농 규모를 가진 부농의 비중은 정체되고 있다. 그리고 중농은 22.2%로부터 20.6%로 저하되였다.

남조선 농민 내부의 계급 분화에서 표현되는 이러한 특성은 무엇보다도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경제 정책의 특성과 관련된다.

미제는 남조선을 독점적 상품 시장으로 확보하고 남조선 경제를 자국의 군사적 부속물로 전락시키며 그의 자주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리하여 민족 공업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도 전면적으로 파괴하였다.

남조선에서 고농 빈농 대렬이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빈궁화가 촉진되는 현상도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농민들에 대한 봉건적 착취와 더불어 미국 독점 자본과 예속 자본의 착취가 과거에 비할 수 없이 강화되므로 농촌 경리는 파탄되고 농민 대중의 령락은 촉진된다. 그러나 미국 독점 자본의 압박 하에 도시에서 민족 공업이 전면적으로 파탄되여 령락된 농민들을 산업 로동자로 흡수하지 못 하게 되므로 이들은 계속 농촌에 운집하여 농촌 《과잉》 인구를 형성하며 봉건 지주들의 령세한 소작지에 다시 결박되여 반 농노적 처지를 강요 당하게 된다.

과거 일본 독점 자본은 자국에서 부족되는 원료 및 반제품의 략탈을 위하여 조선에 일정한 정도의 자본을 투하하였으며 기형적이나마 어느 정도의 식민지 경제를 건설하였다면 오늘 미국 독점 자본은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략의 예봉을 주요하게 자국의 과잉 상품의 투매에 집중하고 있다.

이리하여 미국 독점 자본은 남조선에서 공업을 건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어는 일본 독점 자본이 남조선에서 자연 부원의 략탈과 군사적 수요를 위하여 건설하였던 시설들까지 파괴하거나 이러저러한 강압적 조치들에 의하여 가동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계급적 력량 관계의 변화와 이에 따르는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식민지 통치의 극심한 불안정성과 더불어 미국 내에 조성되고 있는 경제 공황의 폭발적 위기와 밀접히 관련된다.

미제의 이러한 식민지 경제 정책의 결과로 남조선에서 도시 공업의 파탄은 더욱 가중되고 도시 공업에로 령락된 농민들의 흡수력을 일제 시기보다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농민들에 대한 착취가 강화되므로 농민들은 더욱 령락되는데 도시의 공업은 이를 산업 로동자로 인입하지 못 하므로 농촌에서 빈농과 고농의 비중은 일제 시기보다도 급진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남조선 농가 총수에서 1 정보 이하의 영농 규모를 가진 빈농(고농 포함) 호수가 1923~1945 년간에 절대수에 있어서는 7만 호 이상이 증가하였으나 그 비중에 있어서는 도리여 0.7%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조선에서 소작에 관한 참고 사항 적요》 67 페지 및 《경제 년감》 1949년 10~29 페지)

그러나 1945~1960 년간에 빈농(고농 포함) 호수는 절대수에 있어서 41만 호가 증가하였으며 그 비중은 7.8%가 증가하였다.

일제 시기에 비한 미제 강점 하 남조선 농촌에서의 빈농 고농 대렬의 증감 동태에서 나타난 이러한 대조적 차이는 농민 수탈에서 미국 독점 자본보다 일본 독점 자본이 가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본 독점 자본이 통치 말기에 특히 령락된 농민들을 도시 공업에 다소나마 흡수하고 《이민》과 《징용》으로 국외에 강제 이동시키며 소위 《자작농 창정》 운동 등 미봉적 수탈 조치를 취하여 빈농 고농 대렬의 확대를 일시적이나마 완화시켰으나 미국 독점 자본은 이러한 미봉적 조치조차 아직 본격적으로 실시하지 못 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다음으로 남조선에서 해방 후 부농 경리의 발전이 제한되는 것도 일본 독점 자본보다 더욱 강할 뿐 아니라 그와 다른 특이한 농촌 수탈 방법을 적용하는 미국 독점 자본의 강압에 기인한다.

과거 일제는 가혹한 농촌 수탈을 진행하면서도 략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소의 투자는 하였으나 과잉 농산물에 의한 농민 경리의 압박은 가하지 못 하였다.

미국 독점 자본은 남조선 농촌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모조리 군사적 수요를 위하여 략탈하여 내면서도, 농업 생산을 위한 자금 투하는 억제하며 다른 편으로 다량의 과잉 농산물을 투입하여 농민 경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 남조선 농업은 일제 때보다 더 파탄되였다.

절대 다수의 남조선 농민들은 년간 영농 수입과 부업 및 품팔이로 버는 수입을 합하더라도 확대 재생산은 고사하고 단순 재생산도 곤난한 처지에 있다.

그 대부분이 미국 독점 자본의 특혜적 조건으로 영농하는 2정보 이상의 부농들만은 년간 수입으로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중농 이하의 농가들에 있어서는 년간 총 수입으로 그 해의 지출을 보상하면 년 최저 생계비조차 보충하지 못 하고 있는바 중농 상층에서는 그 부족률이 4%, 중농 하층에 속하는 농가들에서는 그것이 벌써 20%이며 1정보 이하의 빈농 고농 계층에 있어서는 그것이 46~60%에 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농 계층 농가들은 오직 생계비의 지출을 현저히 낮추고 로동일과 로동 시간을 과도하게 연장하고 로동 강도를 과도하게 강화하는 방도에 의하여서만 단순 재생산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형편에 있다. 중농 상층 농가들은 년간에 그리 많지 않은 생계비 부족을 보고 있으므로 생계비를 최저 수준 이하로 현저히 저하시키는 방도로 어느 정도의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다.

남조선에서 중농 상층 이상의 농민들이 이러한 방도에 의하여 다소의 자금 축적을 한다 하더라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것으로써 자본주의적 농업 경영을 확대하기는 곤난하다.

미국 독점 자본이 《원조》의 탈을 쓰고 아무러한 관세 제한도 없이 과잉 상품을 남조선 시장에 범람시키고 있는 조건 하에서 미국 과잉 농산물의 압박을 적게 받는 농업 생산 부문이거나 미제 침략군을 위한 군납 농산물을 특혜적 조건으로 생산하는 농가들의 일부만은 부농적 농업 경영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부농 경리를 확대하기는 극히 곤난한 형편에 있다. 그것은 부농 경리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특히 미국 과잉 농산물의 압박으로 농민들은 수지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부농 경리를 확대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 하에 있는 일정한 부분에서 《농지 개혁》 후 부농 경리는 약간의 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과잉 농산물이 남조선 농촌을 거의 전면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또 군납용 농산물과 축산물의 생산이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조건 하에서 이러한 특정 부문을 상대로 하는 부농 경리가 일정한 범위 이상으로 확대되지는 못 한다.

그리하여 부유 농민들이 자금을 축적한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경우에 그들은 이것을 부농 경리의 확대를 위하여 투하할 대신에 토지의 구입과 고리대 자금에 리용하고 있으며 기생적 지주로 고리 대금업자로 변생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남조선 농촌에서 부농 경리 발전을 제약하는 조건들이다.

《농지 개혁》 후 2정보 이상의 영농 규모를 가진 농가 호수 비중의 일정한 증가와 빈농 고농 대렬의 증가를 가지고 그것을 바로 일제 시기에 비한 해방 후 남조선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의 론거로 할 수는 없다.

2정보 이상의 농가 호수의 비중은 1951년에 4.4%로부터 1958년에 6.5%로 《농지 개혁》 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1959년 이후에 그 비중은 계속 저하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농지 개혁》 후 부농 경리가 일정하게 장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독점 자본의 압박 하에 그것이 총체적으로는 얼마나 억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해방 후 남조선에서 빈농과 고농 대렬이 장성한 사실이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 발전의 론거로 되지 못 한다.

물론 빈농과 고농 대렬의 증가는 농민 대중의 령락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는 되나 농민 대중의 령락이 바로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다만 농업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을 촉진시킬 중요한 전제의 하나로 될 뿐이다.

농민 대중의 령락은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도 있었다. 봉건 제도 하에서도 농민들의 대량적 령락이 있었는바 봉건 령주들은 이 령락을 경제외적 강제에 의하여 일정한 한계 내에 정지시킬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남조선 농촌에서도 미국 독점 자본과 봉건주의의 억압과 착취에 의하여 농민들의 대량적 령락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미제는 봉건적 토지 소유 제도를 인공적으로 유지하면서 령락되는 농민들을 토지에 다시 결박시키고 그들을 계속 봉건적 착취와 억압 하에 구속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농업 생산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정체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농촌에서 고농 및 빈농 대렬의 증가는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적 진화의 전제 조건의 하나로는 될 수 있으나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 발전의 지표로는 되지 못 한다.

자본주의의 발전의 가장 직접적인 지표는 고용 로동 사용의 크기다. 레닌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두말할 것도 없이 고용 로동 사용의 크기가 자본주의 발전의 다를 수 없는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지표이다.》(전집 제 22 권, 47 페지)

그런데 남조선 농촌에서 고농 및 빈농 대렬이 일제 말기보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시기보다 고용 로동 사용의 크기는 현저히 감소되였다. 1931~1932년에 남조선 농업에서의 고용 로동 사용의 크기는 총 로동 투하량의 34.7%였다. 그러나 1958~1961년간에 그것은 16.0~21.6%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남조선 농업 로동에서 고용 로동의 비중은 1958년 이후 체계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것은 1958년에 21.6%, 1959년에 21.1%, 1960년에 17.8%, 1961년에는 16.0%로 저하되였다.

이러한 제 사실은 남조선 농업 생산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이 일제 시기 수준보다 높지 못하며 보다 정체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제에 의한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의 인공적 유지 정책과 미국 독점 자본의 강력한 압박에 의하여 남조선 농촌에서 빈농과 고농 대렬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부농 경리의 발전은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다.

3

농촌에서의 계급 분화의 이러한 특징

적 현상은 공황의 심각한 영향 하에 또 외래 독점 자본의 강한 압박 하에 다른 나라에서도 일찌기 체험한 바 있다. 이것은 다만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공황과 외래 독점 자본의 압력이 제거될 때 정상적인 분화 과정에로 환원될 수 있다.

그러나 농민 내부에서 촉진되는 계급 분화와 농민들의 빈궁화는 외래 독점 자본을 배제하는 것만으로는 청산되지 못 한다. 그것은 동시에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원칙에 립각한 민주주의적 토지 개혁을 실시하여 지주 제도를 청산하며 농업 생산을 발전시키고 농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적 제 대책을 실시함으로써만 그 길이 열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 농민들은 자기들의 처지의 개선을 위한 반제 반봉건 투쟁에 궐기하여야 한다.

남조선 농촌의 각 계급들과 계층들은 그가 처하고 있는 계급적 및 생활상 처지로 하여 반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에 대하여 각양한 립장을 취하고 있다.

빈농 계층(고농까지 포함)은 농가 총수에서 73.1%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지 총 면적의 56.6%를 경작하고 있을 뿐이다. '토지가 없거나 토지가 부족한 빈농 고농들은 그의 절대 다수가 각종 형태로 지주 토지에 결박되여 있으며 지주에게 예속되여 있다. (《사상계》 1962년 6 호 82 페지 및 기타 자료) 이들의 거의 대부분이 년간 수입으로 생계비의 태반을 보충하지 못 한다. 그리하여 부단히 토지를 상실하며 령락한다.

이리하여 이 계층 농민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에 협연적인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로동 계급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의 하나로 된다.

중농은 농가 총수에서 20%, 경지 면적 규모에서 38%를 차지하고 있다. 중농은 그 대부분이 형식 상 자기 소유 토지에 기초하여 영농하고 있으나 그들 역시 미제와 지주 및 부농들에 의한 착취와 억압을 받고 있으며 일부 중농은 토지가 부족하므로 직접 지주의 토지를 소작하고 있다. 중농 계층에 속하는 농민들의 거의 모두가 부단히 령락되여 빈농과 고농의 처지로 전락되고 있으며 극히 적은 부분은 지주와 부농으로 변생하고 있다.

남조선 농촌에서 부단히 령락되고 있는 중농은 로동 계급의 동맹자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과업 수행의 중요한 동력을 이루고 있다.

남조선 농가 총수에서 6.3%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지 면적 규모에서는 18.5%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농은 현존하는 농촌의 봉건적 제 관계와 미국 독점 자본의 압박 하에 그 발전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다. 그들의 적지 않은 부분은 부농적 경리를 확대하지 못 하고 토지를 타인에게 소작 주며 기생적 지주로 변생하며 일부는 중농, 빈농에로 전락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미국 독점 자본의 비호 하에 침략군의 군수용 농산물과 축산물을 생산하며 부농 경리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부농은 고농과 빈농을 눅은 품값으로 또 고리대를 통하여 가혹하게 착취하고 있다.

남조선의 부농들 중에서도 미국 독점 자본의 비호 하에 자기 경리를 확대하고 있는 예속적 부농들과 지주로 변생하는 과정에 있는 계층들을 제외한 부농들 즉 봉건 제도와 독점 자본의 압박 하에 부단히 령락되여 가는 계층들은 반제 반봉건적 립장에 서고 있다. 이와 같이 반제 반봉건적 립장에 서고 있는 부농들은 반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에 인입할 수 있다.

남조선의 지주 계급은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 하에 농민들에 대한 가혹한 봉건적 착취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남조선 사회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반동적 계급이다. 따라서 지주 계급은 남조선에서 반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대상으로 된다.

그러나 국내에 조성된 현 정세로부터 일부 지주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념원하며 이를 위하여 적극 활동한다. 그리하여 미제를 반대하고 평화적 조국 통일 위업에 기여한 지주들에 대하여는 반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에서 토지 대'가를 물어 주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남조선의 고농, 빈농, 중농들과 반제 반봉건적 립장에 있는 부농들은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굳게 단결하여 미제의 남조선으로부터의 철거와 민주주의적 토지 개혁의 실시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어제'날 곡창 지대였던 남조선 농촌은 오늘 만성적인 기근 지대로 전변되였다. 이것은 18 년간에 걸친 미제의 식민지 통치와 그가 남조선 농촌에서 인공적으로 유지해 온 봉건적 지주 제도의 직접적 후과이다. 소위 《원조》의 미명 하에 실시되고 있는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은 남조선 농업 생산력을 전면적으로 파괴하고 농민들을 오늘과 같은 참담한 처지에 몰아 넣었다.

모든 사실은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적 지배를 철폐함이 없이는 남조선 농민들이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될 수 없으며 남조선 농업을 파멸적 위기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 미제에 의하여 기형화되고 전면적으로 파괴된 남조선 공업은 농업을 복구할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 하다.

남조선의 농민 생활을 개선하며 농업을 복구하기 위하여서는 북반부에 튼튼히 축성된 자립적 경제 토대에 의거하여야 한다.

북반부에는 파괴된 남조선 농업을 복구 발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

남조선 농민들은 일치 단결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고 남북의 합작과 협조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발해의 문학 유산에 대한 고찰

리 응 수

조선 인민은 반만 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 있으며 찬란하고도 슬기로운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력사와 문화 전통은 그 동안 일부 봉건 학자들의 사대주의와 일제 어용학자들의 간악한 파괴 책동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외곡되여 왔다. 발해의 력사도 그런 실례로 된다. 발해는 명백히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동안 조선 력사 밖에 놓여 왔다.

해방 후 조선 로동당의 정확한 과학 문화 정책에 의하여 조선 력사의 한 부분인 발해사는 비로소 정당하게 연구되였으며 당시에 찬란히 발전하였던 문학 유산도 옳게 계승되게 되였다.

7 세기 중엽에 고구려와 백제의 통치 계급들은 극도로 부패 타락하였으며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막아 낼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이러한 틈을 타서 신라는 3 국 통일의 길에 들어 섰으며 동방에 진출하려는 당나라와 합세하여 드디여 660년에는 백제를, 668년에는 고구려를 통합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애국적 유민들은 국가 회복의 념원을 안고 옛 고구려의 장군이였던 대조영(大祚榮)의 지휘 밑에 당 나라 침략군을 완전히 물리치고 698 년 태백산 (당시 동북의 산) 남쪽에 새로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발해》라고 불렀다.

발해는 그 뒤 크게 발전하였다. 옛 고구려 령토의 대부분을 회복한 발해는 동북 아세아의 큰 령토를 차지하고 조선 인민의 문화 전통을 계승 발전시켰다.

발해의 이와 같은 급격한 장성과 지위의 공고화는 동방에 대한 침략을 부단히 기도하여 온 당 나라로 하여금 발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발해는 고구려의 찬란한 력사와 문화 특히 고구려 문학의 고귀한 전통과 경험에 토대하여 자기의 문화와 문학을 창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발해 사람들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발해국은 고려(고구려를 말함—필자)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扶餘)의 유속(遺俗)을 보유하고 있다.》

발해는 고구려의 《천손》(天孫) 사상도 그대로 계승 발전시켰다. 천손 사상은 원시 시대로부터 발생하여 최초에는 씨족장이나 종족의 탁월한 지도자를 숭배하는 사상과 결부되여 있었다. 례컨대 고조선의 단군 신화, 고구려의 해모수 신화, 신라의 시조 박 혁거세 신화도 모두 이러한 사상과 결부되여 있다. 발해의 시조 대조영도 《하느님의 자손》으로 간주되였다.

발해는 서울에 국학을 설치하고 많은 귀족 자제들에게 경서, 력사학, 문학 등을 공부시켰으며 당 나라에도 류학생을 보내여 이들이 발해의 문학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발해의 춤과 음악은 당시 해외에서까지 이름이 높았는데 발해의 춤은 당 나라에 전해져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일본은 8 세기 중엽에 류학생을 파견하여 수년씩 발해 음악을 배우게 함으로써 발해 무악은 일본의 신악(神樂)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 밖에 발해에는 고유 문자가 있었으며 한자를 빌려 발해음을 표기한 리두 문자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렇듯 옛 고구려의 대부분과 그 인구를 포괄하고 고구려의 전통적 문화를 계승한 발해는 그 터전 우에서 자기의 문화와 문학을 찬란히 발전시킴으로써 당시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고 불리웠다.

그러나 발해의 문화와 문학 유산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10 세기 초에 발해가 거란인에 의하여 멸망된 후 그 유산의 거의 전부가 인멸된 것과 관련된다. 이것은 조선 문학의 연원의 하나인 발해 문학을 연구하는 데 많은 곤난을 주고 있다. 그러나 발해 문학의 일부 유산들과 린접 국가들의 사료를 통하여 우리는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한 발해 문학의 풍부성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발해의 문인들 가운데서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들로서는 양 태사(楊泰師), 왕 효렴(王孝廉), 배 정(裴頲)과 그의 아들 배 구(裴璆), 승려 정소(貞素) 등이 있다. 또 발해가 망한 뒤 발해 자손의 문인으로서 알려진 사람들은 왕 정균(王庭筠), 오 현명(烏玄明) 등이였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당시 발해 국가의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당 나라와 일본 등 외국에도 자기의 문명을 높이 떨쳤다. 이것은 당시 발해 문학의 높이를 말해 주는 동시에 린접 국가들과의 왕성한 경제-문화적 교류를 잘 말하여 주고 있다.

발해 국가 초기의 문학을 대표하는 문인의 한 사람은 양 태사이다. 그는 8세기 중엽에 발해국 제 3 대 문왕(文王) 때의 시인이였으며 정치 활동가였다. 그의 생애와 창작 정형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발해의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으로서 일본에까지 문명을 떨치였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밤에 다듬이 소리를 듣고》(夜聽擣衣詩)는 바로 일본에 외교 사신으로 갔을 때에 지은 시다.

서리찬 달'밤에 강물은 유난히 빛나는데
고국을 생각하는 나그네의 마음 더욱 간절하여라
긴 밤을 새려니 울적한 마음 견디기 어렵구나
때마침 들려 오는 이웃 녀인의 다듬이 소리
이었다, 끊었다, 끊었다, 이었다.
그 소리 조국에서 듣던 바로 그대로다.
…

다듬이 소리는 우리 나라나 중국 등 동방 여러 국가 인민들의 민족적 풍속, 녀성들의 근로 생활과 결부되여서 고대, 중세 문학의 중요 제재로 되였다. 이 시에서 보다싶이 작자는 멀리 이국 땅의 달 밝은 밤에 다듬이 소리를 듣고 조국과 고향을 사모하는 감정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노래하였다.

더우기 이 시에서 특징적인 것은 감정 표현의 섬세성과 수법의 평이성이다. 그것은 8 세기 이전 우리 시가 문학에서 찾아 보기 드문 것으로서 우리 나라 문학사에서 의의 있는 작품이며, 발해 문학 발전의 높이와 수준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양 태사와 함께 시인으로서 우수한 사람은 왕 효렴이다. 그도 역시 정치-외교 활동에 전심하다가 외국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작품으로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5 편의 시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달을 보고 고향을 생각하노라》 (對月思鄕之作)는 그의 대표작이다.

적적한 여름'밤
낮같은 저 달'빛
산과 물을 샅샅이 밝힐 때
저 달'빛 바라 보는
고향의 내 안해 임을 그리리
고향 떠난 나그네의 마음도 한 없이 쓸쓸하다.

이 시에서 작자는 이국에 가서 밤에 달을 보고 자기 조국과 고향, 가정을 그리는 감정을 금치 못 하고 있으며 며

우기 그는 이국 땅에서 돌아 오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인 것 만큼 자기 안해를 사모하는 감정을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다.

그는 시의 마지막에 《누가 달'빛이 천리에 갈라진 그리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 준다고 말하였는가》고 반문함으로써 고국을 그리는 정을 보다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다.

발해 문인들의 문학적 기량은 해외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당 나라의 유명한 시인의 한 사람이였던 온 정균(溫庭筠)은 당시 당 나라에 와 있던 발해의 왕자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큰 위훈 세우시고
고국으로 돌아 가시는
그대가 남긴 아름다운 시구들
오래도록 이 땅에 전하리.

이러한 것으로 보아 이 발해 왕자가 당 나라에서 얼마나 문명을 높이 떨쳤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알려진 사람들 중에서 발해 말기의 문학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는 배 정과 배 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도 자세히는 알 길이 없으나 모두 뛰여 난 시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외교 사신으로 갔던 배 정에 대하여 당시 일본의 정치, 문학 분야에서 제 1 인자였던 스가하타 미찌자네(管原道眞)는 배 정의 높은 시적 재능을 격찬하여 《칠보지재(七步之才—일곱 걸음 걷는 사이에 시를 짓는 재주)》라고 하였다. 또한 시인 시마다 다다오미(島田忠臣)도 배 정의 시적 풍격을 이야기하면서 쓰기를 《그 날카로운 맛이 적진으로 쳐 들어 가는 병사의 서리'발 같은 칼날을 련상시키고 마치 번개가 번득이는 듯 날래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배정은 발해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문학 작품들을 남겨 놓았을 것이 명백하며 발해 국가 말기의 문학을 찬란하게 개화시킨 이름 높은 문인이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발해 왕조는 건국 후 229 년이 지난 기원 926년에 거란족의 나라인 《료》에 의하여 망하였으나 발해 인민들은 그 후 300 년 동안 오사국(烏沙國), 정안국(定安國), 흥료국(興遼國), 대발해국(大渤海國) 등의 형태로 동북 일대에서 련면히 조선 인민의 력사와 문화 전통을 존속시켰다. 특히 《료》는 발해의 고지에 동단국(東丹國)을 설치하고 거기에 거란인의 높은 관리를 임명하고 거란인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아래 관리들은 전부 발해인들이였으며 여전히 발해의 유속을 보존하고 있었다. 동단국은 다른 나라와의 외교도 독자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발해의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료》가 《금》으로 교체된 후에도 일정한 방법으로 발해인들을 견제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역시 발해의 유민들은 자기의 문화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었다. 더우기 《료》나 《금》의 문학계에서 이름 있는 문인들 중에는 발해의 자손들이 많았다.

정안국왕 오 현명, 료에서 활동한 천조제의 제 2 부인 문비, 금에서 활동한 왕 정균은 발해의 자손으로서 발해 문학을 고수한 우수한 문인들이였다.

왕 정균은 문집까지 알려져 있는 사람으로서 그 문학 유산이 오늘 남아 있는 것만 해도 시 28 수, 사 12 수, 산문 5 편에 달한다.

이들의 문학 유산 중에서 정안국왕 오 현명이 송 나라 태종에게 보낸 서한은 거란인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조선 인민들의 영웅성과 애국주의의 드높은 긍지감을 반영한 우수한 산문 문학 유산의 하나이다.

우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발해는 벌써 망했으나 그 유민들은 동북 땅 여러 지역에서 조선 인민의 력사와 문화 전통을 고수하며 계속 끈어린 투쟁을 전개하였다. 정안국은 그 대표적인 실례의 하나이다.

정안국은 발해가 망한지 1 세기 가까이 되는 900 년대 말까지도 의연히 동북 땅의 서방 일부 지역에서 발해의 명맥을 보존하면서 료를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그 과정에 송 나라와 여러 번의 서신을 통하여 거란의 침략을 공동으로 물리칠 데 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오 현명은 자기의 편지에서 거란이 국토와 성새를 파괴하고 인민을 노예로 끌어 가고는 있으나 《고구려의 옛 병로에 발해의 후예로서》 용감히 조국 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원쑤와 싸우겠다는 불 같은 사상을 표현하였다.

이상과 같은 발해 인민의 애국주의 사상을 반영한 문학 유산 중에서 상층 통치 계급들의 안일성을 폭로하고 선량한 인민들을 못 견디게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빼앗긴 천조제의 안해 문비와 왕 정균의 작품들은 매우 감명 깊다.

문비는 발해의 후손으로서 천조제의 총애를 받아 그의 제 2 부인으로 되였다. 그러나 그는 항상 부화 방탕하고 주색과 사냥에만 몰두하는 천조제의 비행에 격분을 참지 못하여 여러 번 충고하다가 그래도 안 되여 나중에는 《풍간가》(諷諫歌)를 지어 폭로하였다.

국경 지대에 전쟁 기운이 어리여
강적이 침략하는 것만 근심 말라
국내의 간사한 무리를 막고
어질고 충직하며 고생 겪고 힘센
문무(文武) 관리를 적절히 배치하면
능히 아침에 강적을 막아 내고
저녁에 연 나라 전운을 진정케 할 것이다.

이 《풍간가》에서 작자는 북방의 몽고족과 서방으로부터의 한족의 침입을 겁내기 전에 먼저 천조제를 비롯한 상층 통치배들의 부패 타락한 생활을 바로잡고 나라를 위한 충신들을 적절히 배치한다면 외적도 스스로 막을 수 있다고 충고하였다.

이 시는 물론 상층 통치배들의 정치 도덕적 부패상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작자가 여기서 《충성스러운 사람》과 섶 우에 드러 누워 등'살이 배기는 아픔을 참고 짐승의 열을 씹으면서도 그 쓴 맛을 이겨 가며 《고생 겪고 힘센 사람》을 신하로 삼을 것을 권고한 사상은 그것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주의 사상이며 인민의 사상 감정이다.

특히 그의 이러한 애국주의적인 사상 감정은 《영사시》(詠史詩)란 노래에 뚜렷이 반영되여 있다. 그는 료 나라 왕이 거란족 출신들만 요직에 앉히고 그 관리들이 사사로운 일에 군대를 거느리고 왕의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앉아서 독판을 치는 반면에 발해 자손들과 인민들은 학대 받고 쫓겨만 간다고 분격에 차서 폭로 비판하였다.

문비의 가차 없는 이러한 비판의 시편들은 거란왕의 분노를 야기시켜 드디여 사형을 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듯 문비는 발해의 자손으로서 발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여 싸우다가 무참히 희생된 애국자였다.

왕 정균 역시 애국적인 문학자로서 우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많은 문학 유산을 남겨 놓았다.

그의 《탁주중수 촉선주 묘비》(涿州重修蜀先主廟碑)문은 발해 유민의 문학 유산 중에서 고상한 애국주의 사상 감정을 반영한 우수한 산문 작품의 하나이다.

왕 정균은 이 묘비문에서 인자(仁者—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사람)와 그와 반대되는 불인자(不仁者)를 대치시켜 《인자는 자기 일신을 위하여 일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생각하며, 불인자는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일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나 속심에는 나쁜 마음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끝내 남을 속이지 못하고 바탕이 드러나며 아울러 그가 한 일도 초목처럼 말라 버리고 만다》고 썼다. 그는 이 글에서 또한 《사람을 옳게 평가할 줄 아는 사람은 일의 성공 여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마음을 살핀다》고 하면서 비문의 주인공의 긍정적인 공적에 대하여 찬양하는 반면에 위선자들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의 예봉을 돌리였다.

이것은 왕 정균 자신이 바로 일생 동안 위선자들의 중상에 의하여 감옥에 갇히고 정계에서 쫓겨 났던 체험과 관련되여 보다 더 심각하고 예리하다.

그의 시편들인 《옥중에서 제비를 보고》, 《대안사 시원(大安寺試院)에서 한식날에 읊는다》 등도 그러한 반항의 감정과 비판의 정신으로 일관되여 독자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상에서 발해의 문학 유산을 간단히 살펴 보았다.

발해의 문학 유산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하며 그 의의는 크다.

우리 시대에 와서 비로소 발해의 문학 유산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조선 문학사에서 취급하게 되였다는 사실은 사대주의자들과 어용학자들의 그릇된 견해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으로 된다.

발해의 문학 유산은 우리 나라 7~9 세기 문학사를 보다 풍부화시켜 주었다

발해 문학에서의 애국주의적 사상 감정은 통치 계급의 모순과 부패 타락상을 비판 폭로하는 풍자적 기백과 통일되여 있다.

발해 문학에서는 동시에 주제와 형식의 다양성 그리고 표현 형식의 평이성 등의 특성을 찾아 보게 된다.

특히 사랑에 대한 주제의 새로운 개척, 자연 묘사에서의 환상적 요소의 거의 완전한 제거 등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며 우리의 문학사 연구에서 가치 있는 것들이다.

또한 발해의 문학 유산은 우리의 문학사에서 해명을 요하던 적지 않은 문제들을 해명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발해 문학에서의 7언시의 발전, 사(詞)와 부(賦)의 출현 등은 7~9 세기 문학과 고려 문학과의 계승 관계를 더욱 명백하게 하여 주었다.

우리는 고려 문학에 7언시나 사(詞), 부(賦)의 문학 형식이 매우 발전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종래의 문학사에서 고려 문학을 련계시켜 주는 통일 신라 문학에는 사나 부가 거의 없고 7언시는 최 치원을 제외하고는 오직 왕 거인(王巨仁)의 《분원시》(憤怨詩) 한 편 밖에 없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나 7~9 세기 문학에서 통일 신라 문학과 대등하는 발해 문학을 연구함으로써 고려 문학과의 련관 관계를 명백하게 해명할 수 있게 되였다.

발해의 문학 유산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성과는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 민족의 혈통과 문화 전통의 구성 부분으로 되고 있는 발해의 문학 유산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연구하여 보다 완전한 면모를 알아 내고 그것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문답 학습

국가의 계급성

국가가 인류 사회의 그 어느 때나 존재한 것은 아니였다. 국가는 사회의 계급적 분렬의 산물로서 나타났다.

국가란, 자기의 계급적 적대자들의 반항을 진압하기 위하여 지배 계급의 수중에 장악되고 있는 기구이라고 쓰딸린은 지적하였다.

국가는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의 정치적 조직이며 일정한 경제적 토대우에 서 있는 상부 구조이다. 따라서 계급 사회에서 경제적 토대의 계급적 성격은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규정한다. 그것은 경제적 령역에서 지배하는 계급이 곧 정치적으로도 지배적인 계급으로 되기 때문이다.

지배 계급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는 언제나 지배 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한다. 때문에 적대적 계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에서 국가는 모든 계급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존재하여 온 노예 소유자들의 국가, 봉건 국가,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는 모두가 자기의 계급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르죠아 학자들은 마치도 국가가 모든 사람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것처럼 묘사하며 또한 그것이 사람들이 생겨 날 때부터 생겨나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말한다.

국가가 인류 력사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발생한 력사적 산물이라는 것을 부인하며 또한 그의 계급성을 부인하는 부르죠아적 견해들은 결국 착취자 국가를 영원한 현상으로, 초계급적인 기구로 미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부르죠아 학자들의 주장을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되풀이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우선 현대 부르죠아 국가의·계급성을 부인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야 찌또 도당은 지어 현대 자본주의 국가가 어느 한 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지 않으며 그것은 점차 초계급적인 《자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로 넘어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부르죠아 국가가 자본가와 로동 계급의 리해를 조화시키며 사회 주민들의 요구를 적당히 조절하는 《공평》한 기구로 전환된듯이 묘사하면서 현대 부르죠아 국가의 계급적 본성을 은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현대 부르죠아 국가의 계급적 본성이 변하지 않았으며 독점 자본의 도구로서의 그의 반인민적인 본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레닌은 국가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학설을 외곡하는 수정주의자들을 규탄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국가는 계급적 모순의 불상용성의 산물이며 그 표현이다…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은계급적 모순이 화해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하고 또 근본적인 바로 이 점에 대하여 맑스주의의 외곡은 시작된다…그들은 국가가 계급 협조의 기관으로 된다는 식으로 맑스를 〈약간 수정〉한다.》 (레닌 전집 제 25 권, 487 페지)

맑스주의 철학에서는 어떤 생산 관계우에 서 있으며 어떤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가에 따라 구별되는 국가의 종류를 국가의 류형이라고 한다. 국가의 류형에는 네 가지 즉 노예 소유자 국가, 봉건 국가, 자본주의 국가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가 있다.

우에서 든 첫 세 가지 류형의 국가 즉 노예 소유자 국가, 봉건 국가, 자본주의 국가는 모두 착취 계급의 리익을 옹

호하는 착취 계급의 독재 국가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의 류형에는 같은 류형에도 국가의 구체적인 력사적 발전 조건, 계급 력량의 호상 관계, 계급적 모순의 첨예화 등에 의하여 다양한 통치 형태를 가진다. 례하면 노예 사회에서는 군주 정치, 귀족 정치, 봉건 사회에서는 군주제 또는 공화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민주 공화국, 의회제 군주국, 파쑈 독재 등 여러 가지 통치 형태들이 있다.

이렇게 통치 형태는 다양하나 국가의 계급적 본질에 있어서는 아무러한 변동도 없다. 현대 부르죠아 국가들은 어떤 통치 형태를 취하든지간에 모두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본가 계급이 피착취 근로 대중을 착취하며 억압하기 위한 폭력적 조직이라는 의미에서는 동일하다.

오늘 공화제 형태를 취함으로써 《민주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 국가나 립헌 군주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일련의 부르죠아 국가나 모두가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를 옹호하고 근로자들의 반항을 진압하기 위한 자본가들의 폭력 조직이다.

국가의 계급적 성격은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그의 활동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국가의 대내외적 기능은 모두 그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지배 계급의 계급적 성격에 의하여 규정된다.

자본주의 국가의 대내적 기능은 전적으로 근로 대중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며 그들의 반항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의 대내외적 기능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국가의 대외적 기능은 대내적 기능의 연장이다. 국가가 자국 내의 근로 대중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도구로 되여 있다면 그 국가의 대외적 기능도 역시 타국 인민을 억압 략탈하려는 데로 돌려진다. 착취 계급의 대외적 기능은 타국을 침략하고 략탈하고 령토를 확장하는 것이다.

현대 부르죠아 국가의 대외적 활동은 대내적 활동과 마찬가지로 독점 자본가들의 리해 관계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현대 부르죠아 국가는 자본가들의 대외적 침략을 보장하는 도구이다. 지금 독점 자본가들은 국가 기구를 통하여 《원조》라는 미명 하에 후진 자본주의 및 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자본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원조》를 통하여 약소 국가들과 식민지 나라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시킨다.

또한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적 대외 정책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전쟁이다. 제국주의자들은 경제적 침략 수단과 외교적 방법으로 자기들의 침략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전쟁의 방법에 의거한다. 그러므로 전쟁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본성에 기인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에도 세계 도처에 군사 기지를 설치하고 각종 군사 블럭들을 조작하여 사회주의 진영과 식민지 및 약소 국가 인민들을 반대하는 군사적 침략 책동을 계속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고슬라비야 찌또 도당은 제국주의 국가는 더는 전쟁 수단에 의하여 자기의 정치 경제적 리해 관계를 추구하지 않는 《평화 애호적》 국가로 전환되였다고 지껄이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론조는 제국주의를 미화하며 로동 계급의 투쟁을 마비시키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및 로동 운동을 파괴하기 위한 책동인 것이다.

가장 진보적이며 가장 민주주의적인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프로레타리아트는 자신을 착취와 억압에서 영원히 해방하기 위하여 부르죠아 정권을 전복하고 그의 통치 기구를 분쇄한 기초 우에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창건해야 한다.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무기인 사회주의 국가는 부르죠아지의 반항을 진압하며 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 역시 한 계급의 독재의 무기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는 종전의 착취자 국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회주의 국가는 소수 착취자들의 반항을 진압하며 절대 다수의 근로자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을 청산하기 위한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의 무기이다. 따라서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어떤 《순수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전복된 착취 계급들에 대한 독재인 동시에 광범한 근로 대중에 대한 민주주의이다. 독재와 민주주의는 한 범주의 두 측면에 불과하다.

계급 사회에서 순수한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으며 민주주의는 계급성을 띤다.

오늘 전복된 계급들이 자기들의 옛처지를 복구해 보려고 발악을 다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 나라의 전취물을 침해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독재를 부정하고 《완전한 민주주의》에 대해서, 초계급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떠드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은 결국 계급적 원쑤들에게까지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시하자는 것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나라들을 《평화적》으로 자본주의에로 《전화》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전적으로 복무하는 반동적 시도로서 철저히 규탄되여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는 적대 계급들의 반항을 진압하는 기능과 함께 경제 조직자적 및 문화 교양자적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주의 국가는 자기의 경제 조직자적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 건설에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에 립각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면서 인민 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발성을 동원할 수 있으며 인민 경제의 앙양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찌또 도당은 인민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관료화》라고 하면서 《중앙 집권제》와 《민주주의》를 대치시키고 있다. 이들은 국가의 《관료화》를 퇴치하고 민주주의를 발양시킨다는 구실 밑에 《자치화》 《지방 분권화》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개개의 기업소를 《생산자》 집단이 제멋대로 경영케 하면서 이것이 최고의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조직자적 기능을 포기하며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의 요구를 완전히 유린하는 것이다.

결과 유고슬라비야의 현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생산이 계속 감퇴되고 수많은 기업소들이 자본주의적 경쟁에서 파산당하고 있으며 20만의 만성적 실업군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파탄은 인민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포기하고 나라의 경제를 자본주의적 경제 법칙의 작용에 내맡긴 불가피한 결과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문화 교양자적 역할은 사회주의 국가 활동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는 자기의 문화 교양자적 기능을 통하여 착취자 사회의 잔재인 문화의 락후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문화를 건설하며 사람들의 머리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인민들을 새로운 공산주의 사상과 선진적인 문화 기술로 무장한 인간으로 교양한다.

그러나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현 시대는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하면서 최신 기술 습득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며 계급적인 정치 사상 교양을 태공함으로써 부르죠아 사상과 부르죠아 생활 양식의 침습을 조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중을 확고한 맑스-레닌주의적 세계관과 불요불굴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부르죠아적 안일과 개인 향락을 조장하는 방향에서 《교양》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문화 교양자적 기능이 혁명의 요구와는 정반대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사회주의 국가의 대외적 기능은 부르죠아 국가의 대외적 기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회주의 국가의 대외적 기능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을 고수하며 각국 프로레타리아트에게 국제주의적 련대성과 지지를 주며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나라들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국가의 대외 정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자본주의 나라의 로동 운동과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에 대한 지지 원조를 홀시하며 지어는 반대하는 태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세계 혁명을 포기하려는 기회주의적인 로선이며 사회주의 국가의 대외 정책의 본질과 기본 원칙을 완전히 유린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은 사회주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시키며 점차 공산주의에로 이행하는 시기에도 진압의 기능이 보존됨과 함께 그의 경제 조직자적 및 문화 교양자적 기능이 더욱 확대 강화되는 것으로써 발전한다.

그러나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전면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때로부터는 사회주의 국가가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관이 아니라 비계급적인 기관으로 전화한다는 것이며 전면적 공산주의 건설 시기에 들어 서면서부터는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필요 없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우선 사회주의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말살하는 것이며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대한 로동 계급의 국가적 령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레닌은 완전한 공산주의가 실현될 그날까지는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한 계급의 독재는 온갖 계급 사회 일반에서나 또는 부르죠아지를 전복한 프로레타리아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계급 사회〉즉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갈라 놓는 한 력사적 시기 전체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리해한 사람이여야만 맑스의 국가 학설의 진수를 해득한 사람이다》(전집 제 25 권, 522 페지)라고 지적하였다.

프로레타리아 독재 국가는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축성되고 공산주의 교양이 부단히 강화되는 데 기초하여 계급들의 차이가 완전히 소멸되고 자본주의적 사상 잔재가 사회 성원들의 머리 속에서 완전히 극복되고, 나아가서 한 나라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함으로써만 종국적으로 조락될 수 있다.

최 무

정 정 《근로자》 제 18 호 44 페지 좌단 29 행에 1을 2로 정정함.

근 로 자 제 19 호 (루계 233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발 행 • 1963년 10월 5일 인 쇄 • 1963년 10월 3일

ㄱ — 330050 값 40 전